



2026. 10

국회에산정책처 | 산업동향 & 이슈 | 제84호

NABO 산업동향 & 이슈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CONTENTS

산업 동향

산업 이슈 | 최근 건설비용 상승 요인 검토

naboo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산업동향 & 이슈

총괄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조정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작성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김윤희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유기환	경제분석관
지원	양희열	행정실무관

- 「NABO 산업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 (☎ 02-6788-378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산업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산업동향 & 이슈

C O N T E N T S

I 산업생산

1. 전산업	08
2. 제조업	12
3. 서비스업	25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32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41
3. 가공단계별 수출	42

III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44
2. 전력	46
3. 비철금속	51
4. 곡물	52

IV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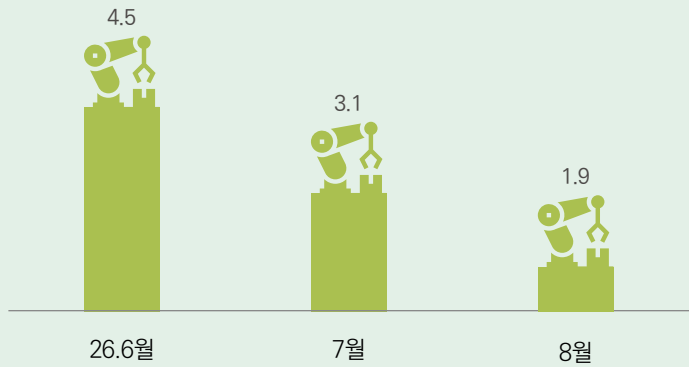
1. 배출권거래	54
2. 재활용가능자원	57

V 산업 이슈

최근 건설비용 상승 요인 검토	6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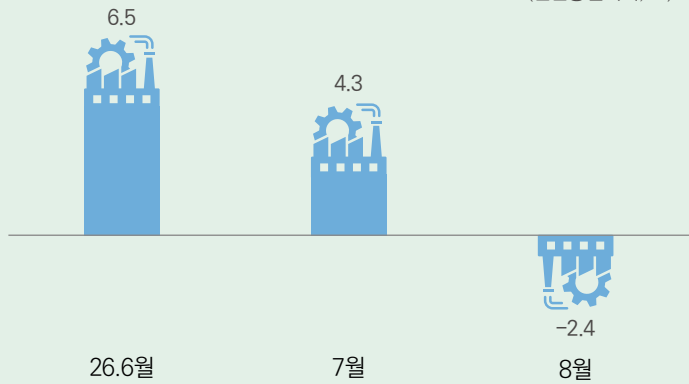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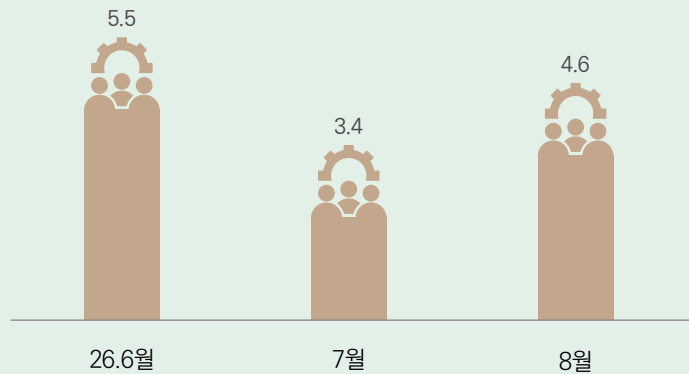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산업동향 & 이슈 종합

-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제조업의 수출 호조, 금융거래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수요 증가, 건설업의 부진 완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완만한 성장을 보임

8월과 9월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장치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석유관련 수출도 증가

- (전산업 생산) 8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전월대비 1.3%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6월) 4.5 → (7월) 3.1 → (8월) 1.9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6.6월) 2.6 → (7월) -0.1 → (8월) -1.3

- (제조업 생산) 8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4%, 전월대비 5.1%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6월) 6.5 → (7월) 4.3 → (8월) -2.4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6.6월) 7.2 → (7월) 0.4 → (8월) -5.1

- (서비스업 생산)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6%, 전월대비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6월) 5.5 → (7월) 3.4 → (8월) 4.6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6.6월) 1.0 → (7월) -1.4 → (8월) 0.5

- (건설업 생산) 8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 전월대비 1.9% 증가

- 건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6월) -4.4 → (7월) -3.4 → (8월) 1.3
- 건설업 생산(전월대비, %): ('26.6월) 4.1 → (7월) -1.0 → (8월) 1.9

- (수출) 9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1,038.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3.9%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7월) 816.4 → (8월) 830.4 → (9월) 1,038.4
- 수출액(전년동월대비, %): ('26.7월) 76.3 → (8월) 81.7 → (9월) 103.9

- (에너지 및 원자재) 9월 「에너지, 비철금속, 곡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에너지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18.6 → (8월) 34.5 → (9월) 70.0
- 비철금속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27.4 → (8월) 32.9 → (9월) 30.4
- 곡물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9.5 → (8월) 12.0 → (9월) 15.8

- (환경) 8월 「배출권(KAU25) 증가, 장내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 KAU25 증가(원/톤): ('26.6월) 22,800 → (7월) 25,950 → (8월) 29,450
- KAU25 장내거래량(천톤): ('26.6월) 11,358 → (7월) 6,409 → (8월) 9,008

주요 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원/달러,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2Q	7월	8월	9월
전산업생산	1.6	1.1	0.3	1.0	3.6	-0.2	2.9	2.9	3.1	1.9	-
제조업생산	4.3	3.0	2.8	3.5	8.1	-1.9	3.0	2.1	4.3	-2.4	-
서비스업생산	1.3	2.0	0.9	1.6	3.2	2.3	4.2	4.5	3.4	4.6	-
소매판매액	-1.9	0.3	-0.8 (0.6)	-0.1 (-0.6)	1.6 (1.2)	0.9 (0.6)	3.2 (2.4)	2.4 (-1.7)	-1.0 (-2.6)	-0.3 (-1.8)	-
설비투자지수	3.0	1.2	5.4 (-2.2)	5.5 (0.3)	1.2 (0.6)	-6.2 (-3.8)	9.8 (13.0)	13.0 (3.6)	24.6 (8.0)	16.1 (-9.5)	-
건설기성액	-4.6	-16.5	-21.1 (-7.2)	-17.3 (-2.6)	-11.9 (-0.8)	-15.1 (-4.1)	-6.1 (0.5)	-4.6 (0.4)	-3.4 (-1.0)	1.3 (1.9)	-
수출(통관)	8.1	3.8	-2.3	2.1	6.5	8.4	38.4	57.3	63.3	68.7	83.5
13대 산업	10.4	3.3	-3.3	0.9	6.1	8.9	45.3	69.7	76.3	81.7	103.9
수입(통관)	-1.7	0.0	-1.3	-1.7	1.6	1.4	11.0	22.4	26.4	22.4	26.0
경상수지(억달러)	999.7	1230.5	194.9	283.9	360.1	391.7	743.8	1166.3	420.8	461.1	-
소비자물가	2.3	2.1	2.1	2.1	2.0	2.4	2.1	3.0	2.8	3.1	2.9
취업자수 증감(천명)	160	193	155	207	217	195	183	32	108	184	113
실업률	2.8	2.8	3.4	2.8	2.2	2.9	3.5	2.9	2.6	2.0	2.0
원/달러환율	1,473	1,439	1,473	1,350	1,403	1,439	1,530	1,549	1,424	1,369	1,353
국고채금리(3년)	3.11	2.57	2.59	2.39	2.45	2.84	3.20	3.62	3.83	3.79	3.99

주: 1.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
 3.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I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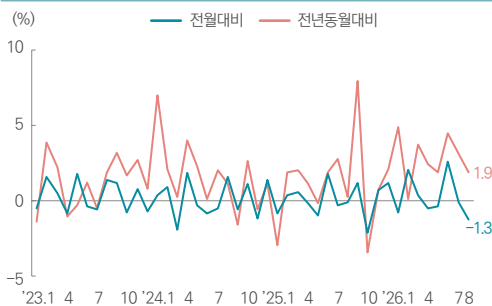
1

전산업

■ 2026년 8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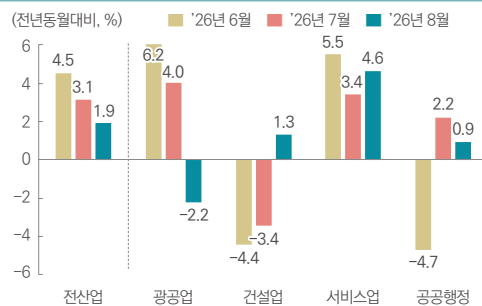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전월대비 1.3%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6월) 4.5 → (7월) 3.1 → (8월) 1.9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6.6월) 2.6 → (7월) -0.1 → (8월) -1.3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4.6%), 건설업(1.3%), 공공행정(0.9%)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2.2%)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1.9%), 서비스업(0.5%)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4.8%), 공공행정(-2.9%)은 감소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2026년 8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전년동월대비: 일반기계(13.5%), 조선(13.0%), 철강(3.9%), 무선통신기기(3.2%), 반도체(1.4%), 화학(0.3%)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자동차(-29.4%), 컴퓨터·주변장치(-15.1%), 섬유(-9.9%), 석유(-3.1%), 가전(-1.0%) 등은 생산이 줄면서 2.4%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6월) 6.5 → (7월) 4.3 → (8월) -2.4

- 전월대비: 컴퓨터·주변장치(15.7%), 일반기계(3.1%), 석유(1.6%), 화학(0.7%)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자동차(-24.8%), 무선통신기기(-17.2%), 섬유(-8.5%), 가전(-8.4%), 조선(-4.1%), 철강(-2.3%), 반도체(-2.2%) 등의 생산이 줄며 5.1% 감소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6.6월) 7.2 → (7월) 0.4 → (8월) -5.1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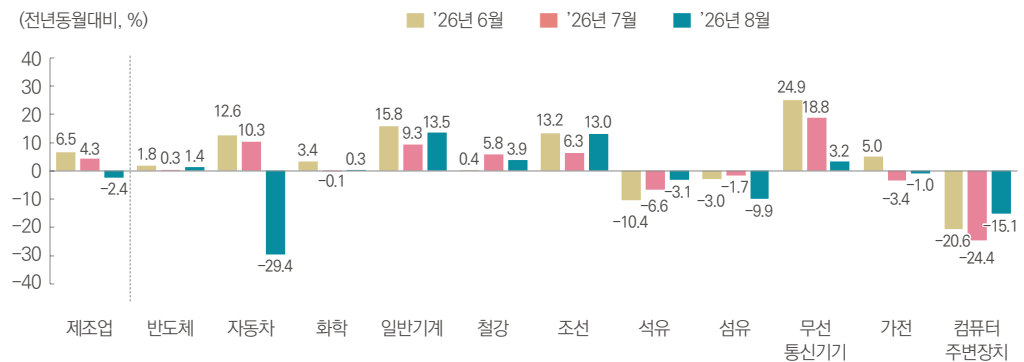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전월대비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제조업(원지수)	117.7	116.5	112.7	125.3	121.5	110.0	-5.1
제조업	4.3	7.0	2.3	6.5	4.3	-2.4	
반도체	15.6	21.3	13.5	1.8	0.3	1.4	-2.2
자동차	2.5	6.5	5.2	12.6	10.3	-29.4	-24.8
화학	-1.6	0.0	-1.5	3.4	-0.1	0.3	0.7
일반기계	0.4	7.2	0.3	15.8	9.3	13.5	3.1
철강	1.1	1.2	-3.9	0.4	5.8	3.9	-2.3
조선	29.8	18.2	-3.5	13.2	6.3	13.0	-4.1
석유	2.6	5.4	-0.3	-10.4	-6.6	-3.1	1.6
섬유	-2.6	0.0	-1.8	-3.0	-1.7	-9.9	-8.5
무선 통신기기	17.0	-7.5	-14.9	24.9	18.8	3.2	-17.2
가전	-22.6	-6.2	-19.5	5.0	-3.4	-1.0	-8.4
컴퓨터 주변장치	15.8	37.7	29.5	-20.6	-24.4	-15.1	15.7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그림 3 | 제조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26년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1%), 부동산업(-0.1%) 등은 줄었으나, 금융·보험업(9.6%), 정보통신업(7.2%), 운수창고업(4.2%),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4.2%), 도소매업(1.2%) 등이 늘며 4.6%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6월) 5.5 → (7월) 3.4 → (8월) 4.6
- 전월대비: 부동산업(-1.6%), 숙박·음식점업(-0.9%), 도소매업(-0.7%), 금융·보험업(-0.6%),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0.6%) 등은 줄었으나, 정보통신업(4.7%), 운수창고업(1.3%),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0%) 등이 늘며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6.6월) 1.0 → (7월) -1.4 → (8월) 0.5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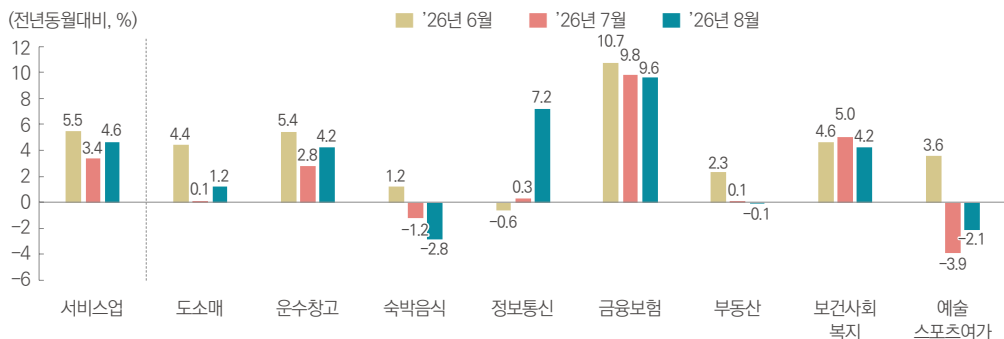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전월대비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서비스업(원지수)	121.7	119.2	116.2	128.4	123.3	121.5	0.5
서비스업	2.3	2.3	0.8	5.5	3.4	4.6	
도매 및 소매업	2.4	5.4	1.1	4.4	0.1	1.2	-0.7
운수 및 창고업	3.8	2.7	1.6	5.4	2.8	4.2	1.3
숙박 및 음식점업	-2.5	1.5	-0.2	1.2	-1.2	-2.8	-0.9
정보통신업	1.2	-0.2	-0.3	-0.6	0.3	7.2	4.7
금융 및 보험업	6.1	1.5	1.4	10.7	9.8	9.6	-0.6
부동산업	-0.5	-1.3	-1.9	2.3	0.1	-0.1	-1.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7	5.3	4.6	4.6	5.0	4.2	-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4	4.8	0.2	3.6	-3.9	-2.1	1.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 | 서비스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2026년 8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2024년 5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하다 28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였는데, 부문별로는 건축(0.1%)과 토목(4.8%)이 모두 증가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6.6월) -4.4 → (7월) -3.4 → (8월) 1.3
 - 건축(전년동월대비, %): ('26.6월) -3.0 → (7월) -7.2 → (8월) 0.1
 - 토목(전년동월대비, %): ('26.6월) -8.1 → (7월) 8.8 → (8월) 4.8
- 전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1.9% 증가하였고, 부문별로는 건축(4.5%)이 증가하였으나 토목(-3.9%)은 감소
 - 건설업(전월대비, %): ('26.6월) 4.1 → (7월) -1.0 → (8월) 1.9
 - 건축(전월대비, %): ('26.6월) 5.6 → (7월) -9.0 → (8월) 4.5
 - 토목(전월대비, %): ('26.6월) -0.5 → (7월) 23.8 → (8월) -3.9

| 표 3 | 건설업 생산(불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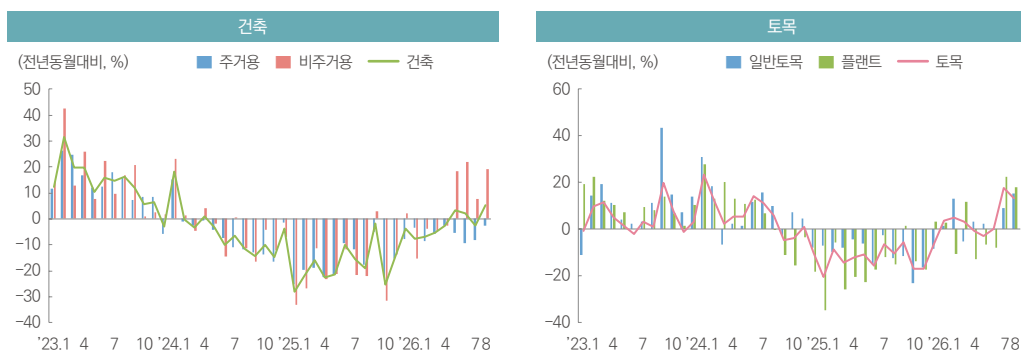
(단위: 조원,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건설업(생산액)	11.0	9.1	8.6	10.6	8.8	8.7	1.9
건설업	-12.3	-14.1	-17.7	-4.4	-3.4	1.3	
건축	-10.5	-16.1	-19.7	-3.0	-7.2	0.1	
토목	-16.7	-7.1	-11.6	-8.1	8.8	4.8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5 | 공종별 건설업 기성액(경상) 추이



주: 1. 건축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성되고, 토목은 일반토목, 플랜트, 전기기계, 조경공사로 구성되나, 전기기계, 조경공사는 토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를 제외함

2. 세부 공정에 대한 건설기성액은 불변기준으로 공표되지 않으므로 경상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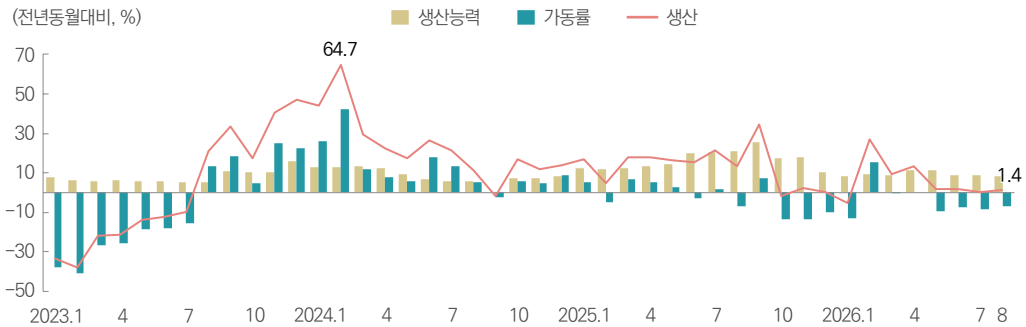
제조업

■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8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8 → (7월) 0.3 → (8월) 1.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7.3 → (7월) -8.6 → (8월) -7.1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8.7 → (7월) 8.8 → (8월) 8.5

| 그림 6 | 반도체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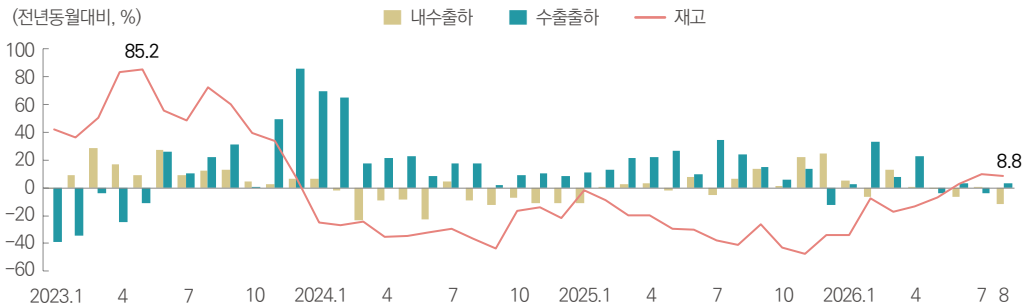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반도체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8.8%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2.4 → (7월) 9.6 → (8월) 8.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6.3 → (7월) 1.0 → (8월) -11.4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3.3 → (7월) -3.9 → (8월) 3.4

| 그림 7 | 반도체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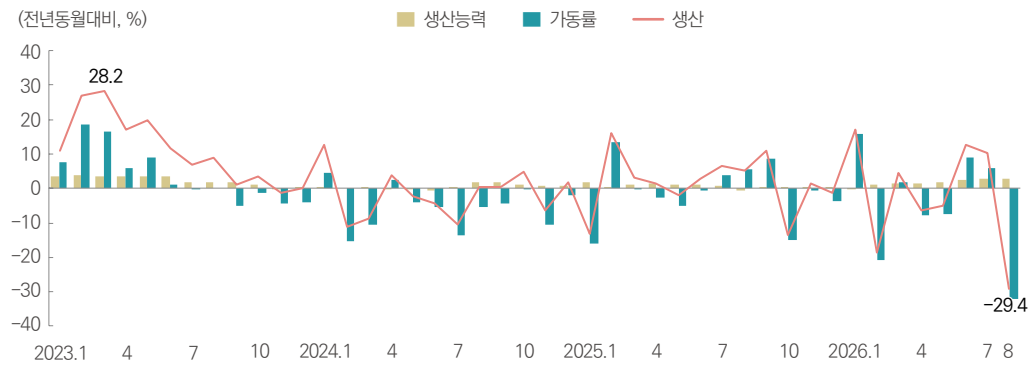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자동차: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8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9.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2.6 → (7월) 10.3 → (8월) -29.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8.8 → (7월) 5.9 → (8월) -32.1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2.3 → (7월) 2.7 → (8월) 2.7

| 그림 8 | 자동차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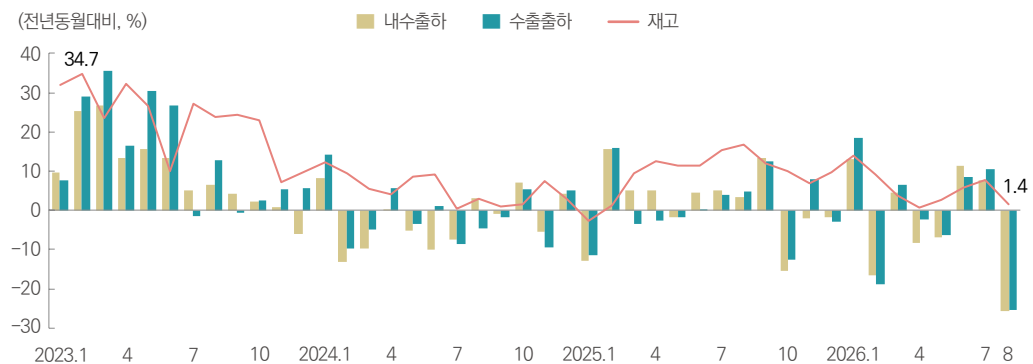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자동차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5.7 → (7월) 7.5 → (8월) 1.4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1.3 → (7월) 7.6 → (8월) -25.5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8.5 → (7월) 10.5 → (8월) -25.4

| 그림 9 | 자동차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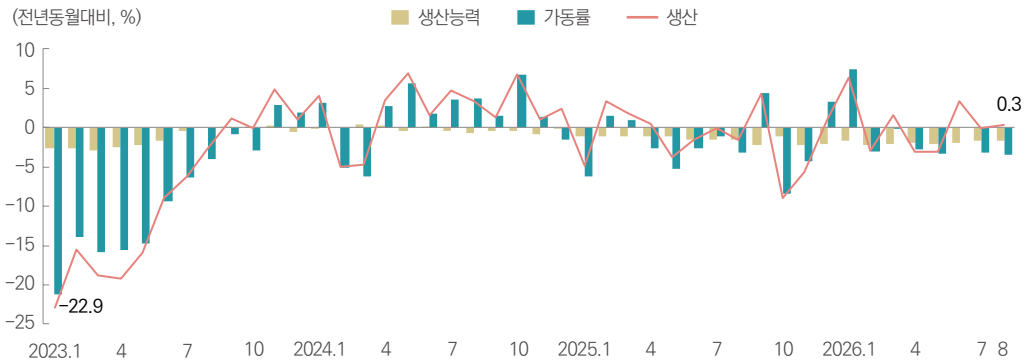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화학: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8월 화학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3.4 → (7월) -0.1 → (8월) 0.3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0 → (7월) -3.2 → (8월) -3.5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9 → (7월) -1.7 → (8월) -1.7

| 그림 10 | 화학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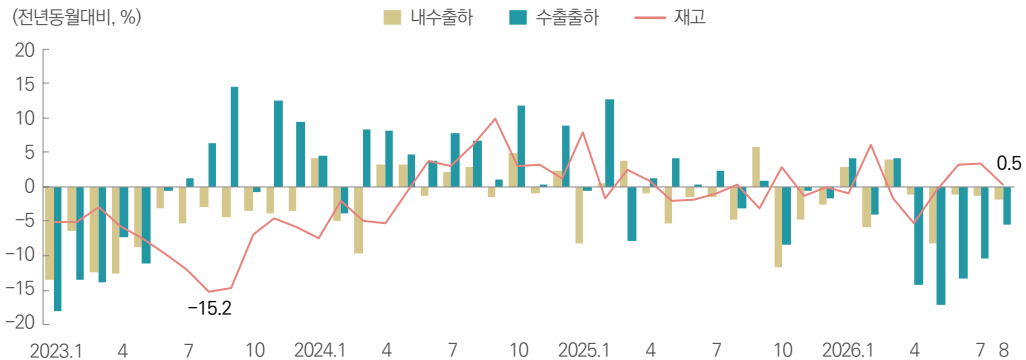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화학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3.3 → (7월) 3.5 → (8월) 0.5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1 → (7월) -1.2 → (8월) -1.8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3.1 → (7월) -10.2 → (8월) -5.3

| 그림 11 | 화학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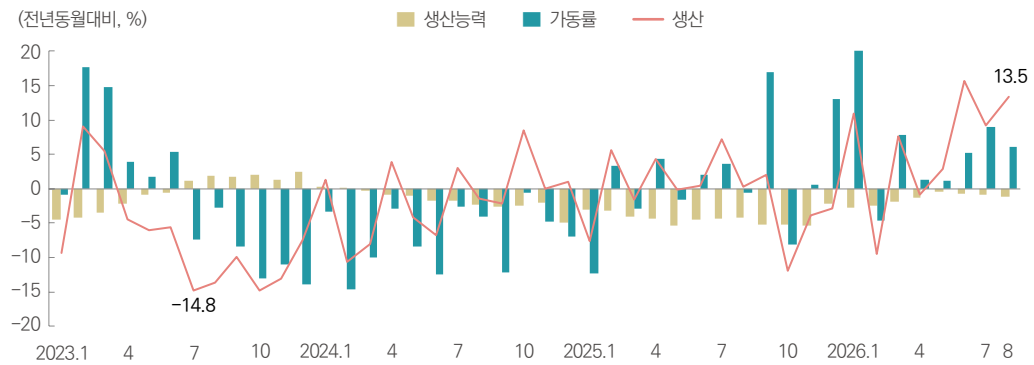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일반기계: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8월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5.8 → (7월) 9.3 → (8월) 13.5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5.2 → (7월) 9.0 → (8월) 6.1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7 → (7월) -0.9 → (8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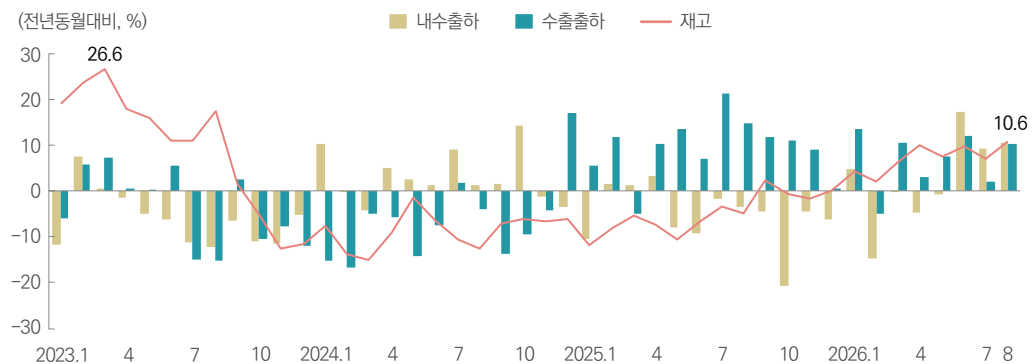
[그림 12] 일반기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일반기계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9.6 → (7월) 6.9 → (8월) 10.6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7.2 → (7월) 9.1 → (8월) 10.3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1.8 → (7월) 2.0 → (8월) 10.2

[그림 13] 일반기계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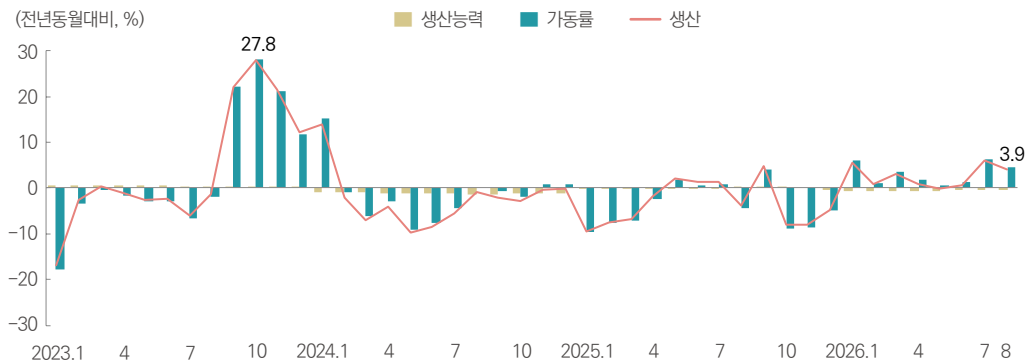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철강: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8월 철강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4 → (7월) 5.8 → (8월) 3.9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1 → (7월) 6.1 → (8월) 4.3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6 → (7월) -0.6 → (8월) -0.6

| 그림 14 | 철강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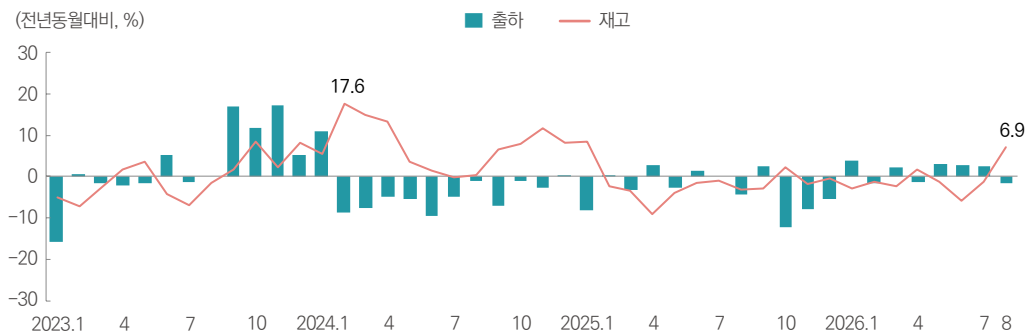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철강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6.0 → (7월) -1.3 → (8월) 6.9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2.8 → (7월) 2.5 → (8월) -1.6

| 그림 15 | 철강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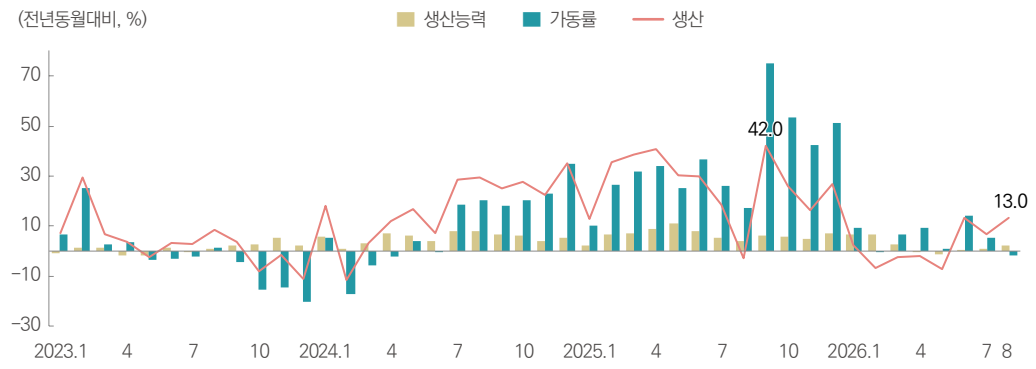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조선: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 및 「출하」는 모두 증가

• 8월 조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3.2 → (7월) 6.3 → (8월) 13.0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3.7 → (7월) 5.3 → (8월) -1.9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4 → (7월) 0.5 → (8월) 2.0

| 그림 16 | 조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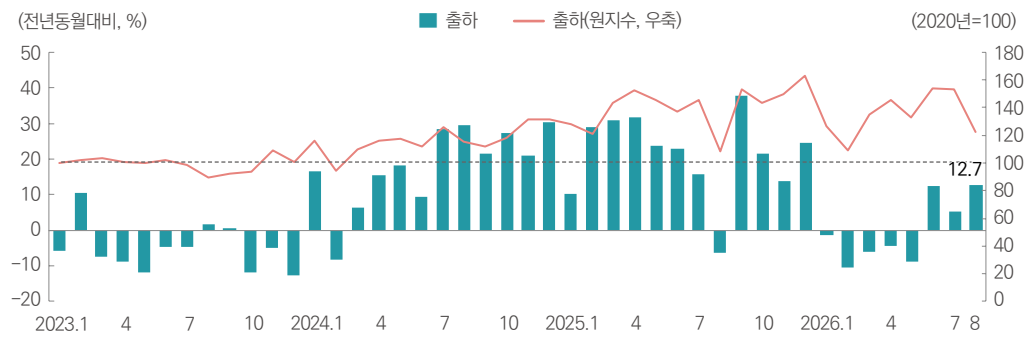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조선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2.3 → (7월) 5.4 → (8월) 12.7
- 출하(2020년=100): ('26.6월) 153.9 → (7월) 153.4 → (8월) 122.1

| 그림 17 | 조선 산업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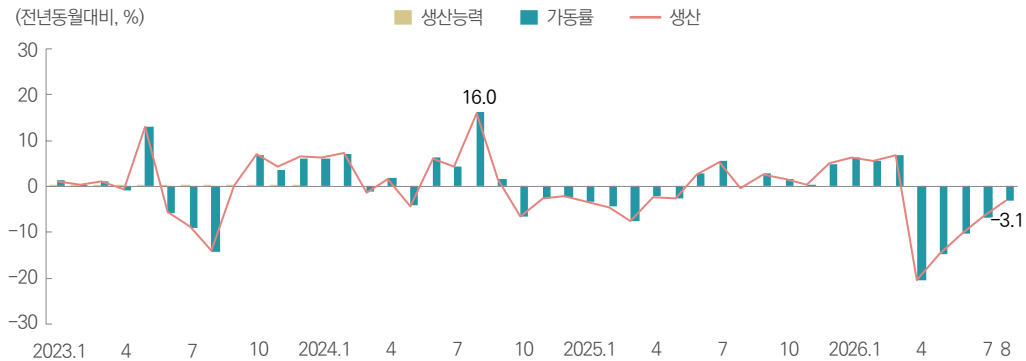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석유: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감소

• 8월 석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1%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0.4 → (7월) -6.6 → (8월) -3.1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0.4 → (7월) -6.8 → (8월) -3.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0 → (7월) 0.0 → (8월) 0.0

| 그림 18 | 석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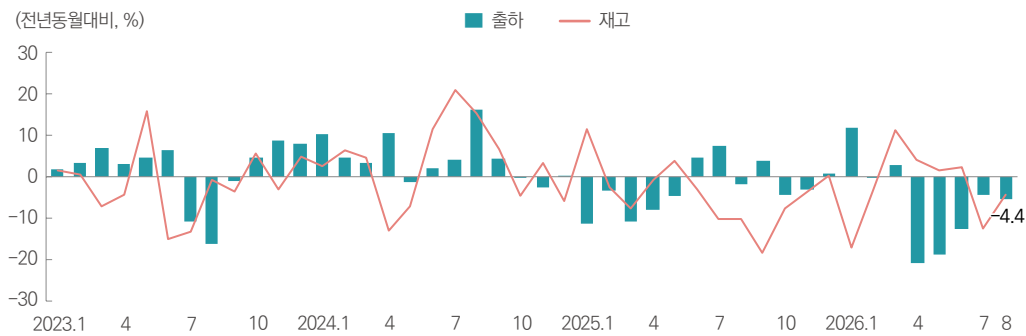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석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4.4%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2.3 → (7월) -12.4 → (8월) -4.4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2.6 → (7월) -4.4 → (8월) -5.4

| 그림 19 | 석유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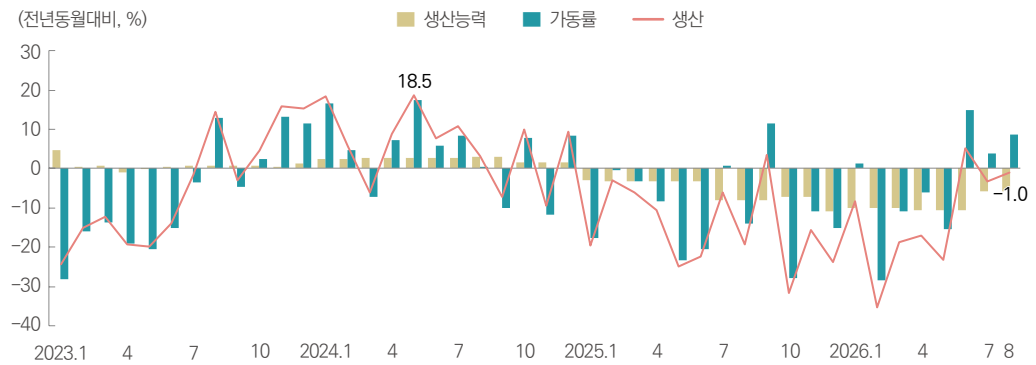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가전: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8월 가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5.0 → (7월) -3.4 → (8월) -1.0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4.7 → (7월) 3.7 → (8월) 8.4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0.6 → (7월) -5.9 → (8월) -6.0

| 그림 20 | 가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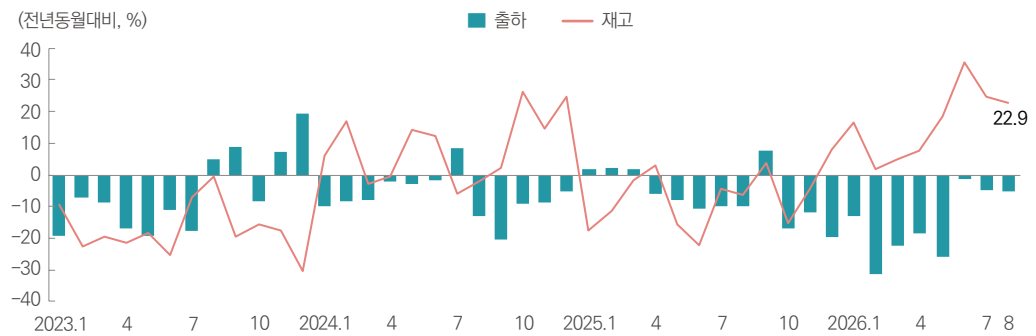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가전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2.9%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35.9 → (7월) 24.9 → (8월) 22.9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0 → (7월) -4.6 → (8월) -4.9

| 그림 21 | 가전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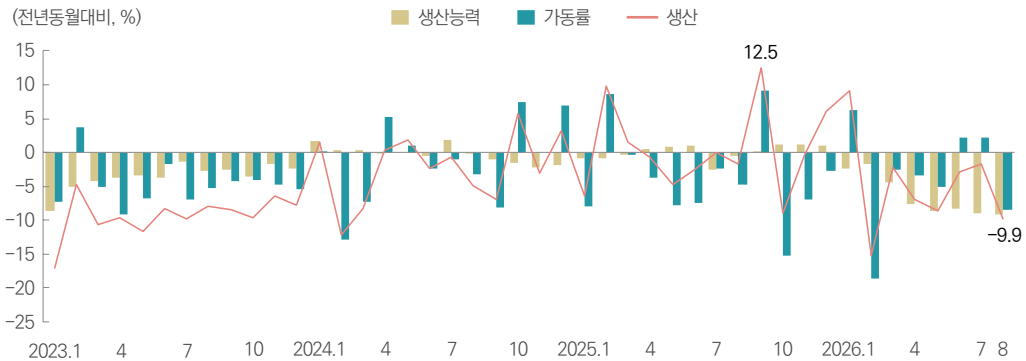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섬유: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감소

• 8월 섬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9%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3.0 → (7월) -1.7 → (8월) -9.9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2.2 → (7월) 2.1 → (8월) -8.6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8.4 → (7월) -9.1 → (8월) -9.2

| 그림 22 | 섬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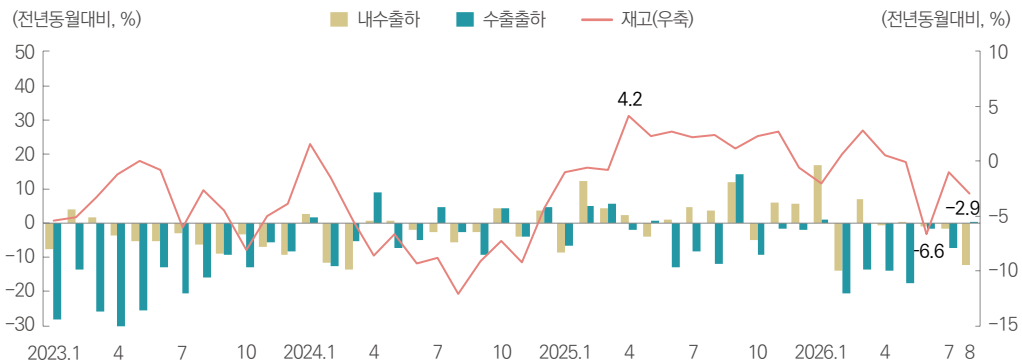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섬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9%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6.6 → (7월) -1.0 → (8월) -2.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8 → (7월) -1.5 → (8월) -12.0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4 → (7월) -7.3 → (8월) 0.1

| 그림 23 | 섬유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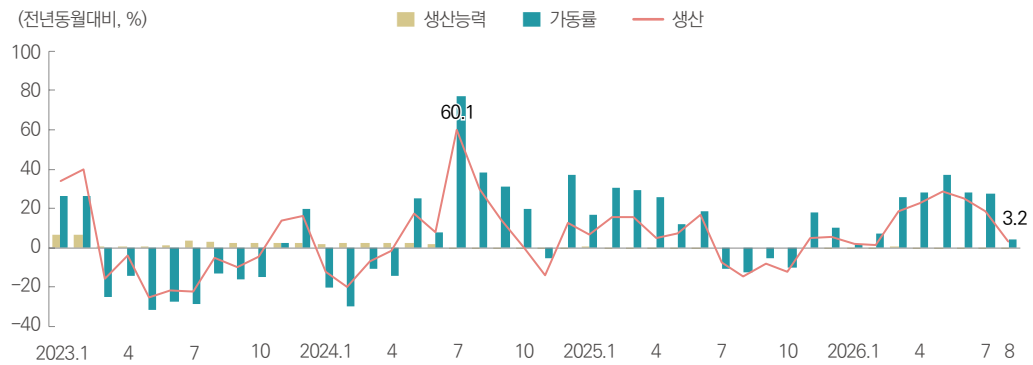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무선통신기기: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8월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24.9 → (7월) 18.8 → (8월) 3.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28.0 → (7월) 27.4 → (8월) 4.3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5 → (7월) -0.6 → (8월) -0.6

[그림 24]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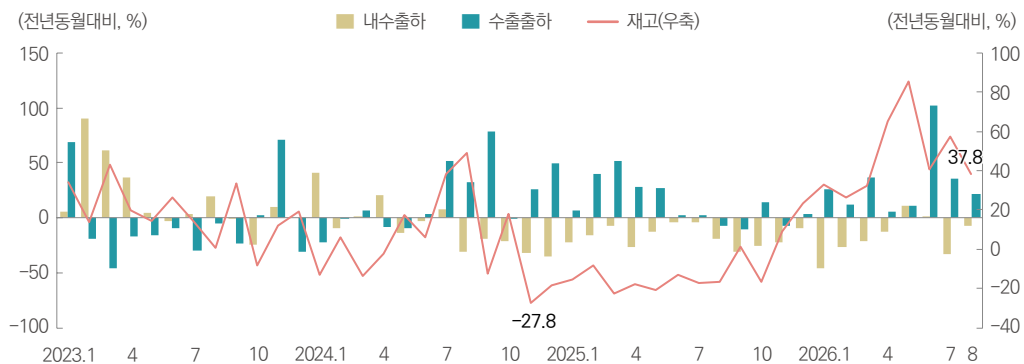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무선통신기기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7.8%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40.3 → (7월) 57.3 → (8월) 37.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4 → (7월) -33.6 → (8월) -7.8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01.6 → (7월) 35.3 → (8월) 20.5

[그림 25] 무선통신기기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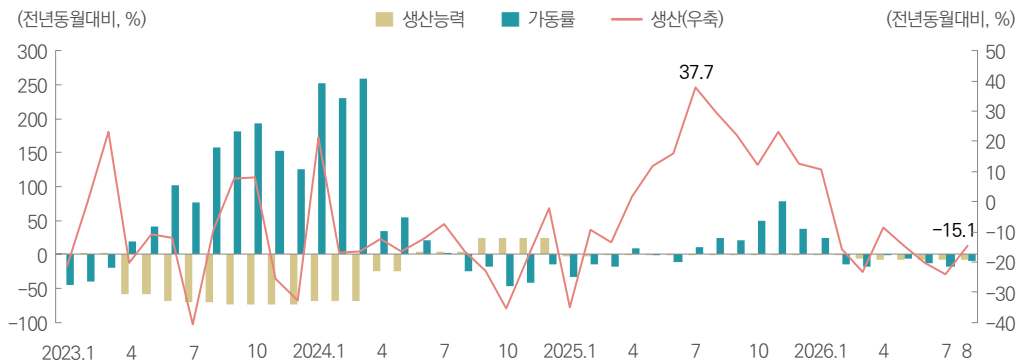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컴퓨터·주변장치: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8월 컴퓨터·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20.6 → (7월) -24.4 → (8월) -15.1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3.0 → (7월) -19.2 → (8월) -9.6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8.2 → (7월) -9.2 → (8월) -8.9

| 그림 26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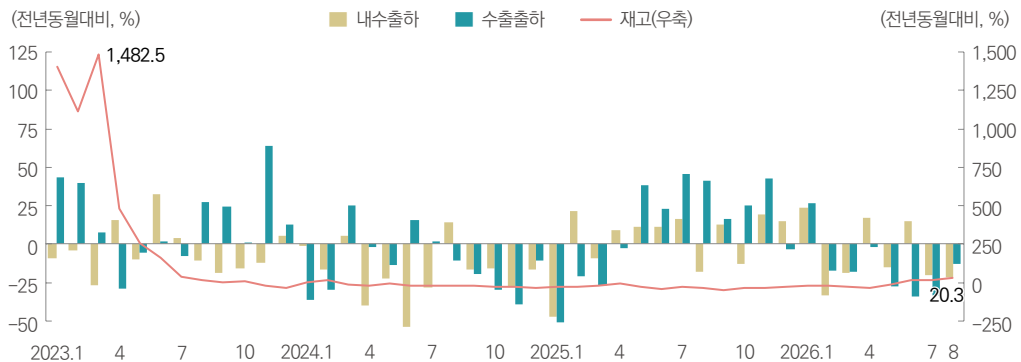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8월 컴퓨터·주변장치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4.6 → (7월) 11.0 → (8월) 20.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4.8 → (7월) -20.2 → (8월) -21.9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34.1 → (7월) -33.6 → (8월) -13.4

| 그림 27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BOX 1] 제조업 관련 최근 주요 정책 이슈

■ (대미 전략투자 시작) 최근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미국 원전 및 알래스카 LNG 협력 관련 3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10.1)¹⁾

- 2025년 한·미는 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합의²⁾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연간 200억 달러 상한)와 조선업 협력 투자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양해각서(MOU)는 2025년 11월 14일 체결됨³⁾
- 1호 사업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6.47GW, 223억 달러)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의결과 국회 사전보고(9.22)⁴⁾를 거쳐 확정됨
 - 2029년 1단계 상업운전, 2032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인근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첫 투자금 24억 달러가 10월 1일 송금됨⁵⁾
- 대형 원전 8기(최대 1,200억 달러) 건설은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으며, 알래스카 LNG는 검토에 착수하는 단계임
 - 원전은 한국형 APR1400 2기와 AP1000 6기로 구성되며, APR1400의 첫 미국 진출 사례가 될 전망
 - 미국은 알래스카 LNG를 한국의 투자 대상으로 발표(9.30)하였으나,⁶⁾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10.1. 보도자료)
 - 향후 원전 기자재, 강관 등 국내 제조업의 참여 범위가 산업 파급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임

■ (미국 관세 후속)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발표 지연, 강제노동 관세는 법원 변론 진행(9.30)⁷⁾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과잉생산 조사(16개 경제권 대상)는 당초 7월말 결과 발표가 예상 되었으나 10월 중순까지 공개되지 않음
 - USTR은 신규 관세 부과 시 각국 무역협정상 관세 상한⁸⁾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한국에는 15% 상한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 대해서는 현행 강제노동 관세(최혜국대우 세율에 12.5% 추가)에 더해 7.5% 추가 관세가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됨

1) 재정경제부,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도자료, 2026.10.1.

2) 정책브리핑, 「한미, 관세협상 타결... 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2025.10.29.

3) 산업통상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 2025.11.14.

4) 산업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2026.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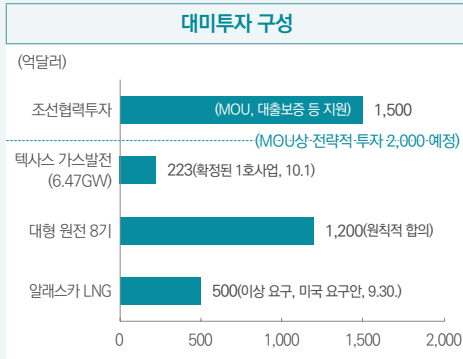
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2026.10.6.

6) Reuters, "Trump to unveil \$200 billion investment in US projects by South Korea, White House says," September 30, 2026.

7)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Oral Argument, September 30,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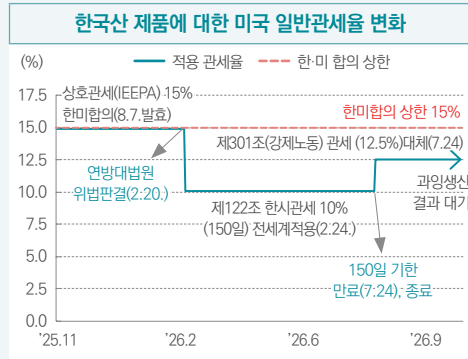
8) 한·미는 2025년 11월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한국산 원산지 제품에 한미 FTA-MFN 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2025.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60개 경제권에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한국 12.5%)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9.30)하였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현행 관세 체계가 다시 변동될 수 있음
 - 법원은 추가 서면 제출을 명령(10.2)하였고, 판결은 제출(10.16) 이후 나올 전망



주: 2025년 MOU상 전략적 투자 합의액은 2,000억 달러, 원전은 최대 투자 한도, 알래스카 LNG는 미국 상무장관 발표 기준 (한국 정부는 검토 단계).

자료: 재정경제부(2026.10.1.), 산업통상부(2025.11.14.), Reuters(9.3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제232조 품목관세 대상은 제외. 제301조 관세는 MFN 관세 포함 기준. 날짜는 적용 구간의 시작·종료일

자료: The White House(2025.11.13.), UST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반도체 지원체계 법제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8.11)⁹⁾, 2027년 예산안에 반도체특별회계(2.6조원) 신설·편성됨(9.1)¹⁰⁾

-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이 법률에 근거한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
 -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 지정하고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 반도체특별회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전용 재원으로, 2027년 예산안에 2.6조원이 처음으로 편성됨
 -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반도체 초격차 유지' 예산은 1.3조원에서 3.4조원으로 2.1조원 증가하며, 이 중 1.5조원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됨

제조업 관련 최근 주요 이슈

구분	발표·시행	핵심 내용	제조업 영향
대미 전략투자	국회보고(9.22) 정부발표(10.1)	• 텍사스 가스발전(223억 달러) 1호 사업 확정 • 원전8기(최대1,200억 달러) 합의 • 알래스카 LNG 검토 착수	• 원전 기자재, 강관 등 참여 여부 중요 • 알래스카 LNG는 한-미 입장차
미국 관세	CIT 변론(9.30)	• 과잉생산 「무역법」 제301조 결과 미발표 • 강제노동 관세(12.5%) 적법성 소송	• 15% 상한 유지 전망 • 판결에 따라 관세 체계 변동 가능
반도체 지원체계	법시행(8.11) 예산안(9.1)	• 대통령 소속 특위, 클러스터 비수도권 우선 • 반도체특별회계 2.6조원 신설	• 반도체 지원 예산 1.3→3.4조원 • 서남권 클러스터 1.5조원

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37호, 2026.2.10. 제정, 2026.8.11. 시행)

10) 기획예산처,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202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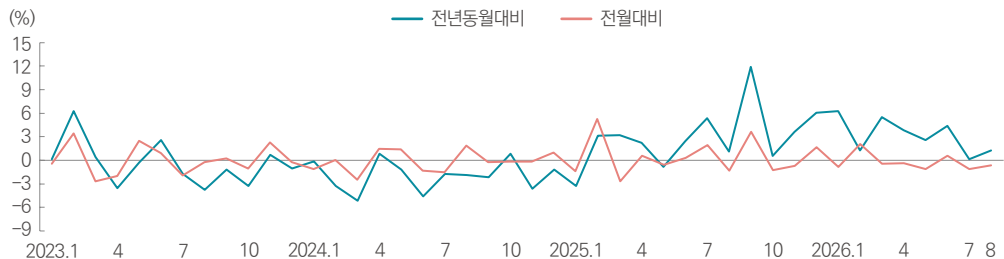
3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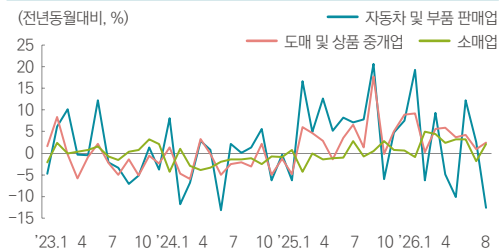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도매업(2.4%)과 소매업(2.1%)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7.4%)의 경우 반도체 수출 확대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기 장비 및 부품 판매가 증가하였고, 생활용품 도매업(2.8%)의 경우 고용량 마운자로 및 성장 호르몬, 약국 화장품 판매가 늘었으며,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21.4%)의 경우 통신 장비 신제품 출시 시차가 발생한 데 기인¹¹⁾
- 전월대비 0.7% 감소하였는데,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0.7%)의 경우 현대자동차 전면 파업(8.21)과 하계휴가로 생산 및 출고가 감소하였고,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3.0%)의 경우 전월 음식료품 할인 행사에 의한 기저효과 및 휴가철 여행 성수기에 의한 여행객 외식 수요 증가로 음식료품 판매가 감소한 데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4.4 → (7월) 0.1 → (8월) 1.2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6월) 0.6 → (7월) -1.2 → (8월) -0.7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5.6%)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승용차(-19.2%), 가구(-8.9%), 오락취미경기용품(-3.5%)의 순

| 그림 28 | 도소매업 생산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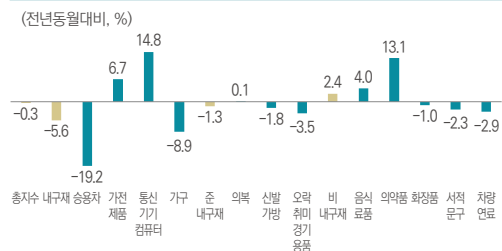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9 | 도소매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0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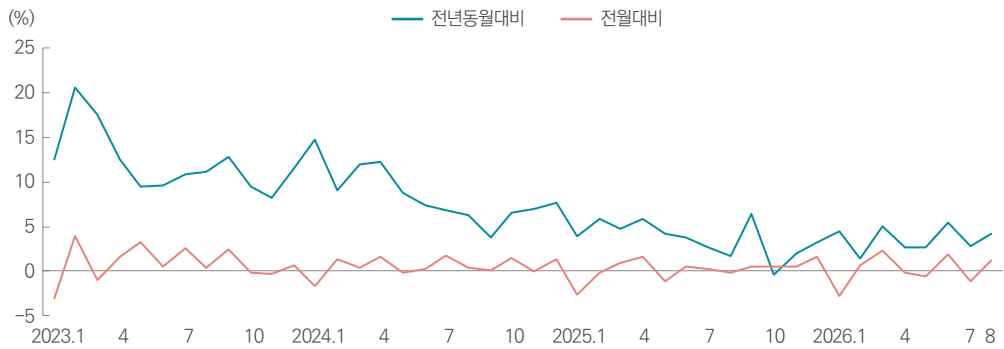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11) 갤럭시 Z 폴드7의 사전예약 기간이 '25.7.15.~7.21이었던 반면, 갤럭시 Z 폴드8의 경우 '26.7.28.~8.31임

■ 운수 및 창고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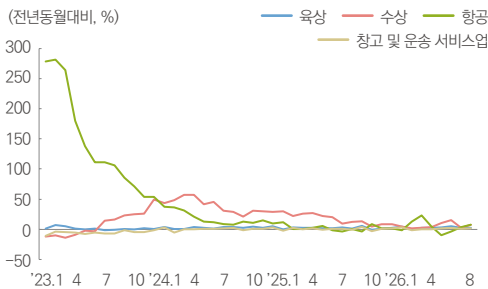
- 운수 및 창고업 생산은 해상운송업(7.4%), 항공운송업(6.2%)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해상운송업의 경우 해상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해운 운임이 급등한 데 기인
 - ※ 8월 해상 물동량은 1억 3,282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였으나 해상운임지수 SCFI와 CCFI 경우 8월말 각각 3,510, 1,834로 142.9%, 58.6% 증가
 - 항공화물운송업의 경우 7월(전년동월대비 11.7%)에 이어 8월에도 11.6%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항공운송비와 물동량이 증가한 데 기인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3.6%)의 경우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4.6%)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항화물운송의 항만시설이용료가 증가한 데 기인
- 해상운송업(7.2%), 항공운송업(5.9%)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5.4 → (7월) 2.8 → (8월) 4.2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6월) 2.0 → (7월) -1.1 → (8월) 1.3

| 그림 31 | 운수·창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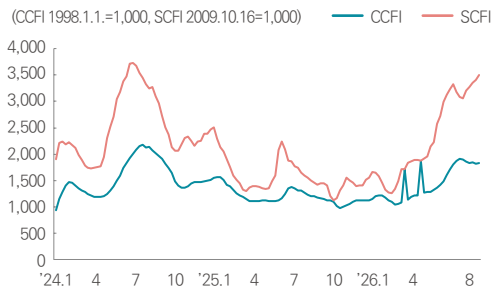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2 | 운수·창고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3 | 해상운임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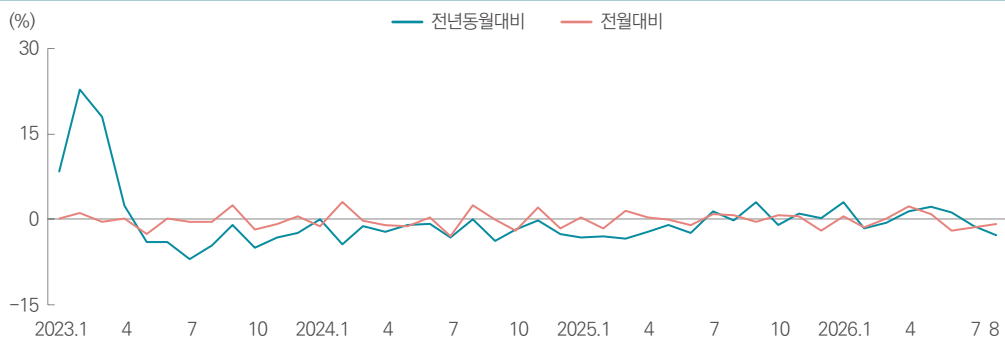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숙박 및 음식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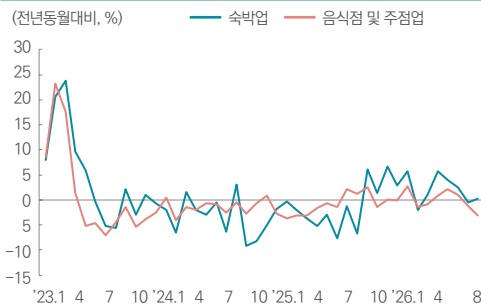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음식점업(-3.4%), 주점업(-6.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식 음식점업(전년동월대비 4.9%)을 제외한 업종(한식 음식점업 -6.4%, 기관 구내식당업 -4.6%, 기타 간이음식점업 -2.8%)에서 생산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7~9월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의한 기저효과와 높은 외식물가 수준 등에 기인
 - ※ 외식물가지수는 2026년 8월 128.5로 소비자물가지수(120.05)를 상회
 - 주점업의 경우 음주 문화 변화, 혼술 및 홈술 확산 등에 따른 술 소비 감소에 기인
- 음식점업(-1.8%)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9% 감소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2 → (7월) -1.2 → (8월) -2.8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6월) -2.1 → (7월) -1.4 → (8월) -0.9

| 그림 34 | 숙박·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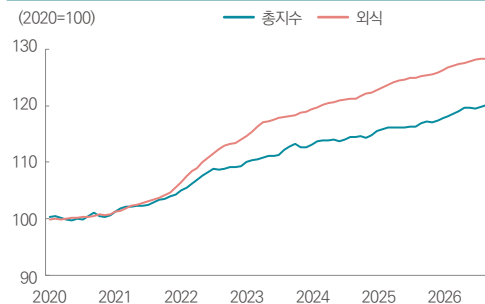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5 | 숙박·음식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6 | 외식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 금융 및 보험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금융 지원서비스업(40.3%),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23.9%)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6% 증가

- 주식거래량 및 거래대금, 펀드·ETF·신탁 등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전년동월대비 늘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수익이 확대된 데 기인

※ 주식거래대금은 8월 69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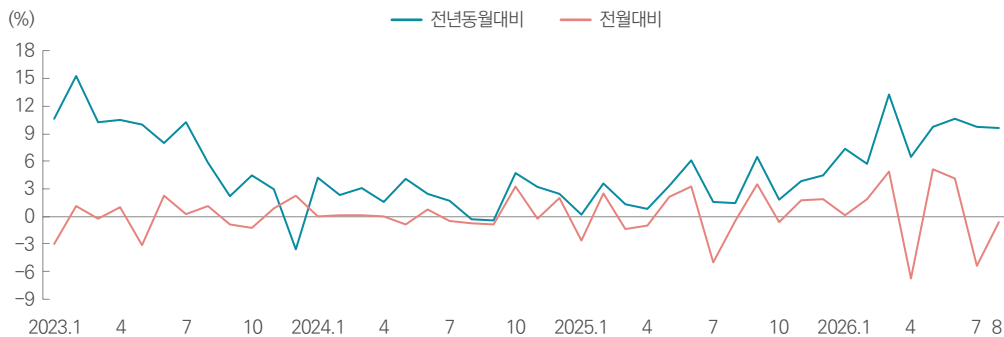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 계약고)은 8월 2,27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5% 증가

- 전월대비 0.6% 감소하였는데, 금융지원서비스업(-16.5%)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 등으로 주식거래대금이 전월에 비해 26.9% 감소하였고, 연금 및 공제업(-24.1%)의 경우 군인공제회가 전월 신규 목돈수탁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0.7 → (7월) 9.8 → (8월)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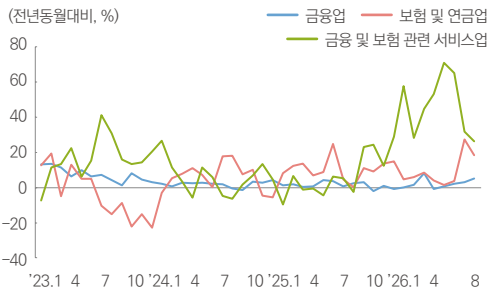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6월) 4.2 → (7월) -5.4 → (8월) -0.6

| 그림 37 | 금융·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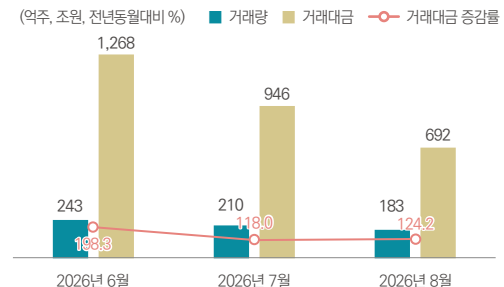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8 | 금융·보험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9 | 주식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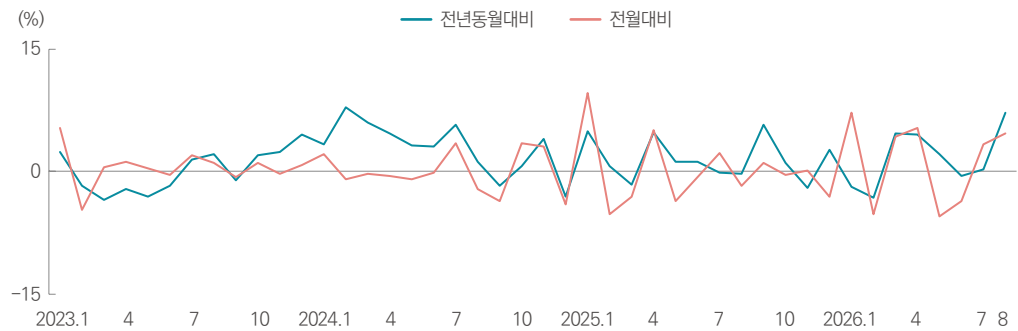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정보통신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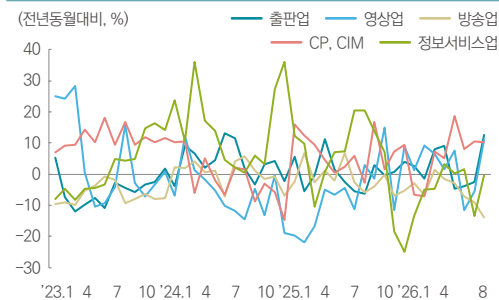
- 정보통신업 생산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4.7%),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11.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0.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제조·금융업의 AI·디지털 전환(DX) 투자 확대,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클라우드 데이터 수요의 증가 등에 기인
 - ※ ICT 품목 설비투자지수는 2026년 8월 전년동월대비 27.0% 증가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의 경우 주요 OTT 플랫폼의 여름 시즌 대형 오리지널 시리즈 및 예능 공급, 주요 배급사들의 국내외 영화 개봉 등에 기인
- 기타 정보 서비스업(30.4%),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19.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3%)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7% 증가
 - 기타 정보 서비스업의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
 - ※ 비트코인 가격은 8월 31일 78,570.3달러로 전월말대비 25.0%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0.6 → (7월) 0.3 → (8월) 7.2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6월) -3.7 → (7월) 3.3 → (8월) 4.7

| 그림 40 | 정보통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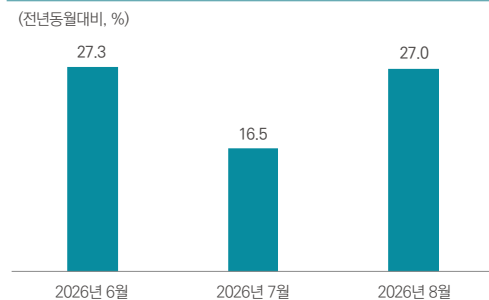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1 | 정보통신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2 | ICT 품목 설비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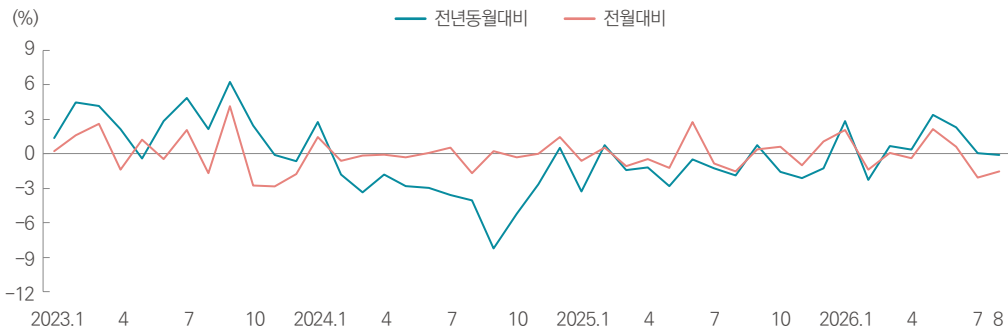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설비투자지수」

■ 부동산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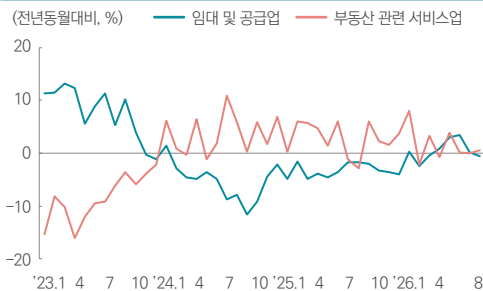
-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4.6%),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4.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으로 신규 주택 수주가 감소한 데 기인
 - ※ '26.8월 건축수주액은 10.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의 경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한 데 기인
 - ※ '26.8월 주택전월세거래량은 199,20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2.2%)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6% 감소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2.3 → (7월) 0.1 → (8월) -0.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6월) 0.6 → (7월) -2.1 → (8월) -1.6

| 그림 43 | 부동산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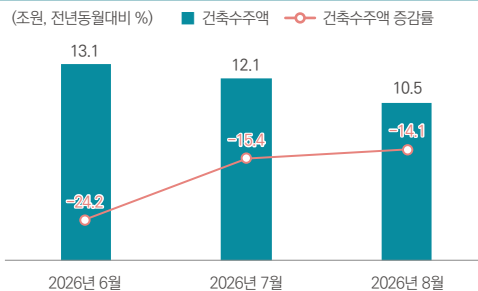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4 | 부동산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5 | 건축수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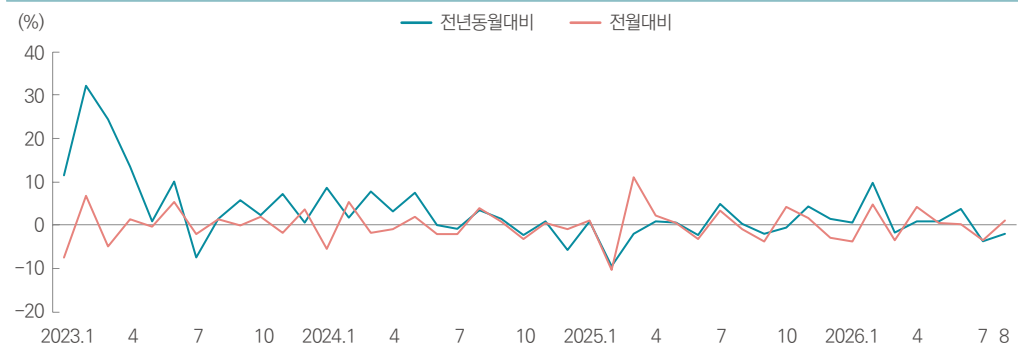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 「건설경기동향조사」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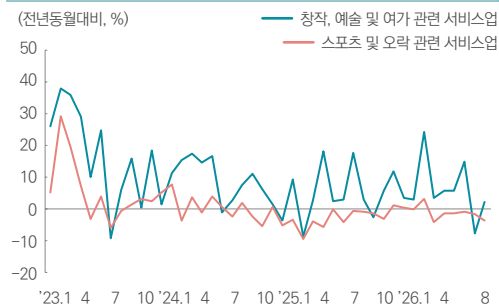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3.9%)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
 - 8월 폭염일수 증가 및 기습적 폭우 등으로 경기장 운영업(-20.6%),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14.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6.5%) 등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감소
 - ※ '26.8월 폭염일수는 11일로 전년동월대비(9월) 2일 늘었고, 평균기온도 서울 기준 35.8도로 전년동월대비 1.5도 증가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0%), 스포츠 서비스업(4.9%)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0% 증가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공연티켓 판매액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 '26.8월 공연티켓 판매액은 1,705억원으로 전월대비 19.0%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3.6 → (7월) -3.9 → (8월) -2.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6월) 0.2 → (7월) -3.4 → (8월) 1.0

| 그림 46 | 예술, 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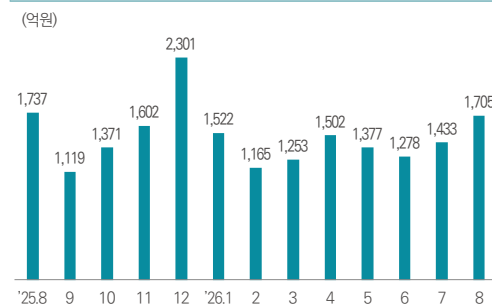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7 | 예술스포츠·여가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8 | 공연티켓 판매액 추이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 2026년 9월 중 「총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총수출은 1,209.4억달러로 국제무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3.5%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6월) 1,019.6 → (7월) 991.9 → (8월) 982.8 → (9월) 1,209.4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70.4 → (7월) 63.3 → (8월) 68.7 → (9월) 83.5
 - 증감률(전월대비, %): ('26.6월) 16.5 → (7월) -2.7 → (8월) -0.9 → (9월) 23.1

■ 2026년 9월 중 「주요 13대 산업¹²⁾¹³⁾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대 산업 수출은 1,038.4억달러로 가전(-13.1%), 바이오헬스(-8.6%)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62.8%), 컴퓨터·주변장치(180.9%) 등을 중심으로 103.9%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6월) 843.5 → (7월) 816.4 → (8월) 830.4 → (9월) 1,038.4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84.6 → (7월) 76.3 → (8월) 81.7 → (9월) 103.9
- 전월대비: 13대 산업 수출은 조선(122.0%), 자동차(46.3%), 반도체(29.2%) 등을 중심으로 전 산업에 걸쳐 전월대비 25.0% 증가
 - 증감률(전월대비, %): ('26.6월) 16.5 → (7월) -3.2 → (8월) 1.7 → (9월) 25.0
- 반도체 수출은 AI 관련 강한 수요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하며 역대 월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9월) 166.2(22.0%) → ('26.9월) 603.0(262.8%)
 - DRAM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6.6월) 21.0 → (7월) 24.0 → (8월) 25.0 → (9월) 26.0
- 자동차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중고차 수출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9월) 83.3(14.3%) → ('26.9월) 78.3(-6.0%)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9월) 64.0(16.8%) → ('26.9월) 60.5(-5.5%)

12) 생산과 수출의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의 업종별 산업분류(KSIC)와 산업통상부의 품목별 산업분류기준(MTI)를 매칭하여 분류

13) 자동차(수송기계,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 및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포함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9월) 19.2(6.7%) → ('26.9월) 17.7(-7.8%)
- 일반기계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및 운송 비용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9월) 42.1(10.5%) → ('26.9월) 40.7(-3.2%)

| 표 1 | 산업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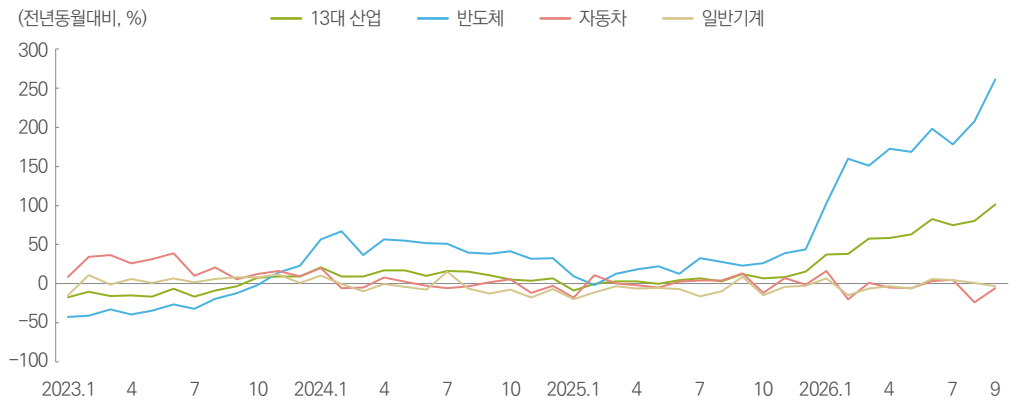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전월대비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총수출(수출액)	598.3	607.2	582.6	659.0	1019.6	991.9	982.8	1209.4	23.1
총수출	4.3	5.7	1.1	12.6	70.4	63.3	68.7	83.5	
13대 산업(수출액)	456.8	463.2	457.1	509.3	843.5	816.4	830.4	1038.4	25.0
13대 산업	3.5	5.9	2.1	11.7	84.6	76.3	81.7	103.9	
반도체	11.5	31.5	27.1	22.0	199.5	178.8	209.1	262.8	29.2
자동차	2.4	4.5	4.0	14.3	3.7	5.4	-25.3	-6.0	46.3
화학	-12.6	-7.7	-16.0	0.0	17.6	10.9	12.7	5.2	1.9
일반기계	-7.4	-17.4	-10.1	10.5	7.2	5.7	1.8	-3.2	15.5
석유	1.0	-5.7	-5.4	4.8	44.9	43.6	65.4	72.0	5.4
철강	-3.1	-1.0	-16.1	-1.8	9.1	4.3	7.9	3.3	6.4
조선	64.1	107.7	11.3	22.0	12.7	46.8	-45.9	29.9	122.0
컴퓨터·주변장치	-15.9	-12.9	-13.2	-5.8	183.8	153.8	174.0	180.9	9.8
무선통신기기	-3.8	-17.8	-14.1	-7.4	51.7	51.0	21.2	23.4	13.8
섬유	-7.9	-4.1	-11.5	8.6	11.3	3.4	0.1	-6.8	17.0
가전	-15.5	-12.0	-14.0	11.9	0.0	-5.5	-1.5	-13.1	14.2
이차전지	-19.6	-21.1	-31.3	-8.8	17.5	17.2	24.1	14.0	20.3
바이오헬스	38.0	-2.7	-9.8	36.9	13.8	29.9	22.3	-8.6	9.7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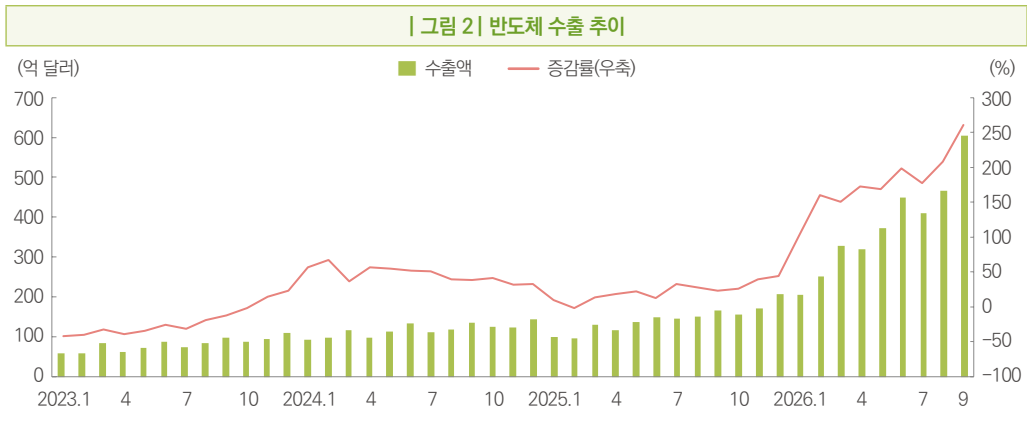
| 그림 1 | 13대 산업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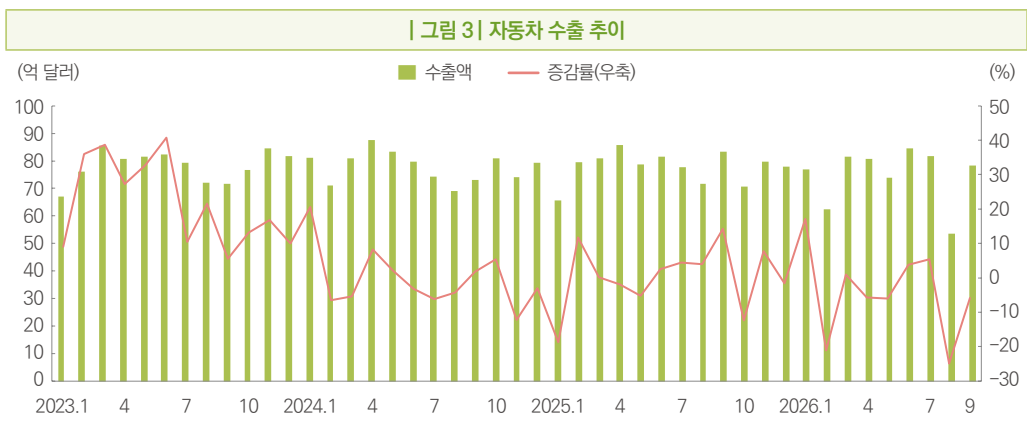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62.8% 증가하여 603.0억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178.8 → (8월) 209.1 → (9월) 262.8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26.7월) 410.1 → (8월) 466.5 → (9월) 603.0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하여 78.3억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5.4 → (8월) -25.3 → (9월) -6.0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 ('26.7월) 81.7 → (8월) 53.5 → (9월) 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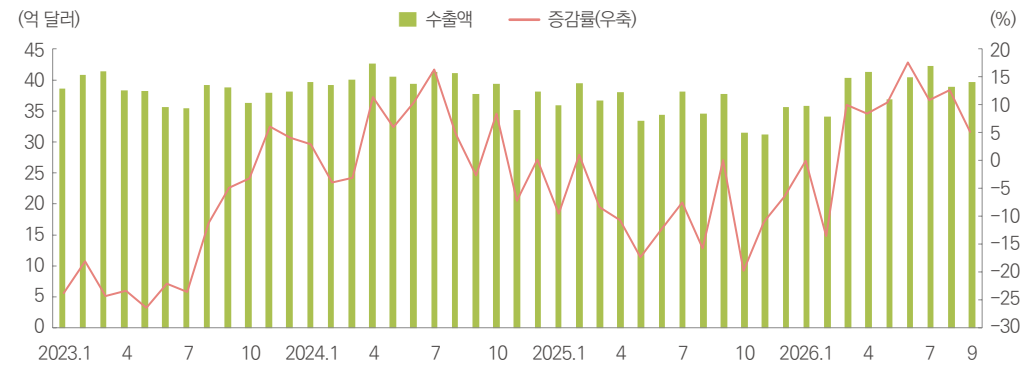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화학: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여 39.5억달러를 기록
 - 화학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10.9 → (8월) 12.7 → (9월) 5.2
 - 화학 수출액(억달러): ('26.7월) 42.1 → (8월) 38.8 → (9월) 39.5

| 그림 4 | 화학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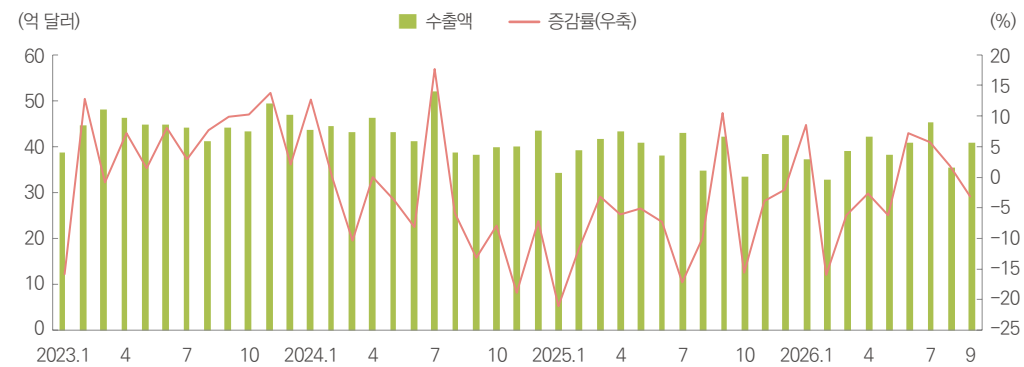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일반기계: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하여 40.7억달러를 기록
 - 일반기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5.7 → (8월) 1.8 → (9월) -3.2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 ('26.7월) 45.2 → (8월) 35.3 → (9월)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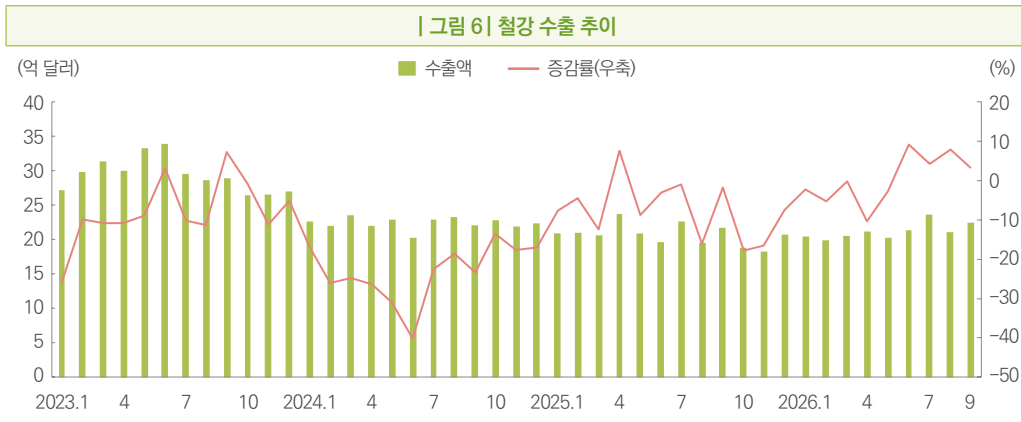
| 그림 5 | 일반기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철강: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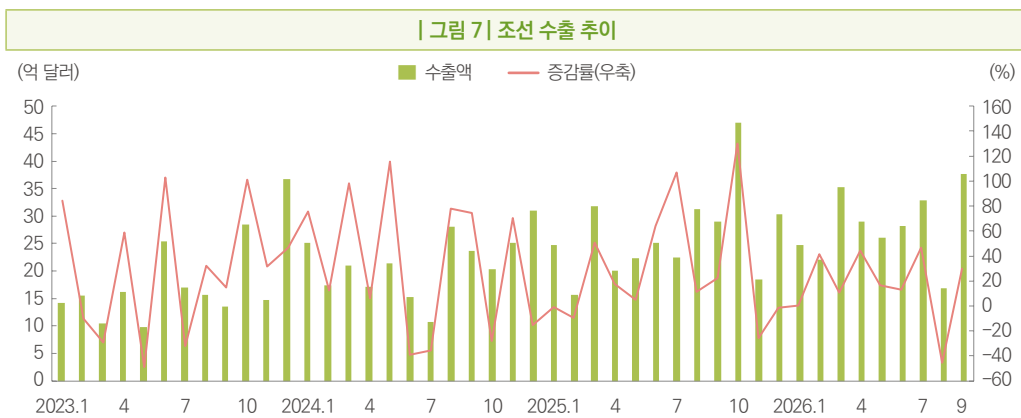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하여 22.4억달러를 기록
 - 철강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4.3 → (8월) 7.9 → (9월) 3.3
 - 철강 수출액(억달러): ('26.7월) 23.6 → (8월) 21.1 → (9월) 22.4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조선: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9.9% 증가하여 37.6억달러를 기록
 - 조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46.8 → (8월) -45.9 → (9월) 29.9
 - 조선 수출액(억달러): ('26.7월) 32.9 → (8월) 16.9 → (9월)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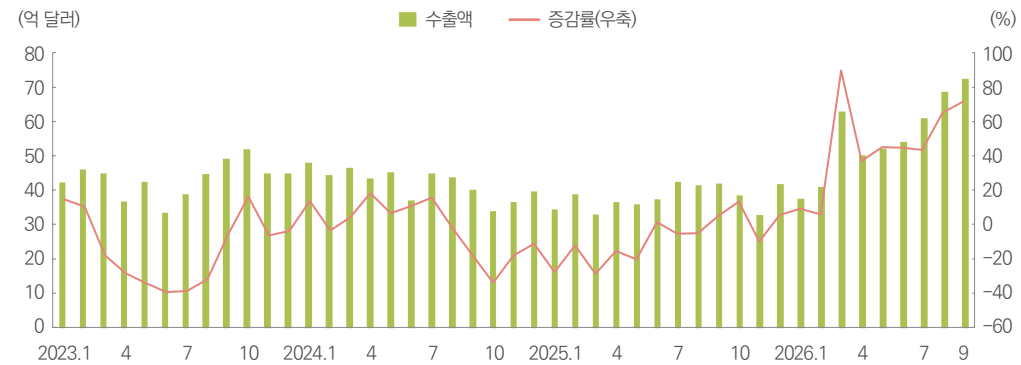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석유: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2.0% 증가하여 72.2억달러를 기록
 - 석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43.6 → (8월) 65.4 → (9월) 72.0
 - 석유 수출액(억달러): ('26.7월) 60.8 → (8월) 68.5 → (9월) 72.2

| 그림 8 | 석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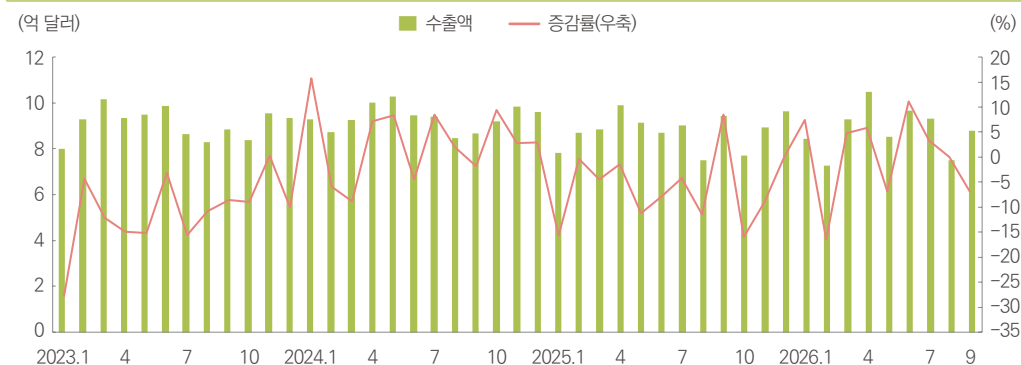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섬유: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하여 8.8억달러를 기록
 - 섬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3.4 → (8월) 0.1 → (9월) -6.8
 - 섬유 수출액(억달러): ('26.7월) 9.3 → (8월) 7.5 → (9월) 8.8

| 그림 9 | 섬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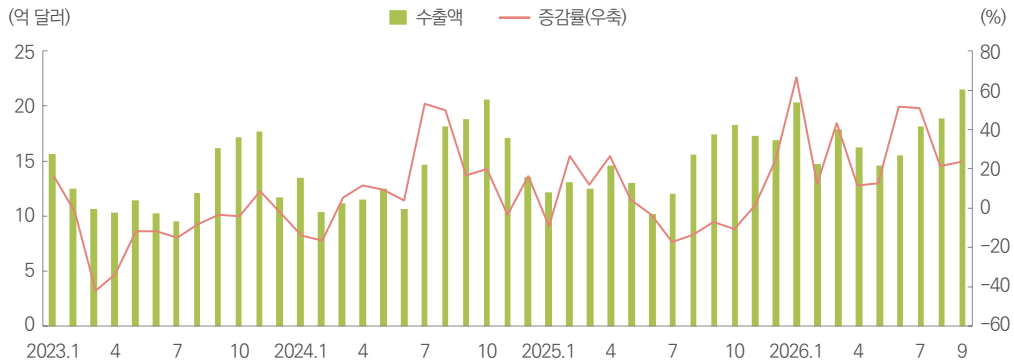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무선통신기기: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4% 증가하여 21.4억달러를 기록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51.0 → (8월) 21.2 → (9월) 23.4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억달러): ('26.7월) 18.1 → (8월) 18.8 → (9월) 21.4

| 그림 10 | 무선통신기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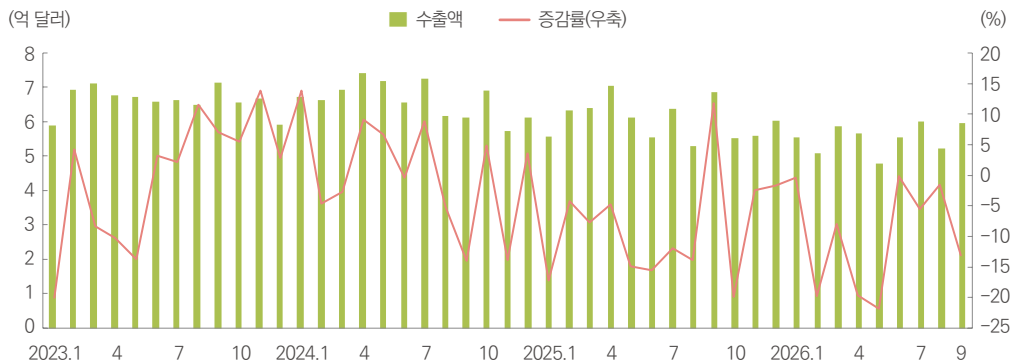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가전: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1% 감소하여 6.0억달러를 기록
 - 가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5.5 → (8월) -1.5 → (9월) -13.1
 - 가전 수출액(억달러): ('26.7월) 6.0 → (8월) 5.2 → (9월) 6.0

| 그림 11 | 가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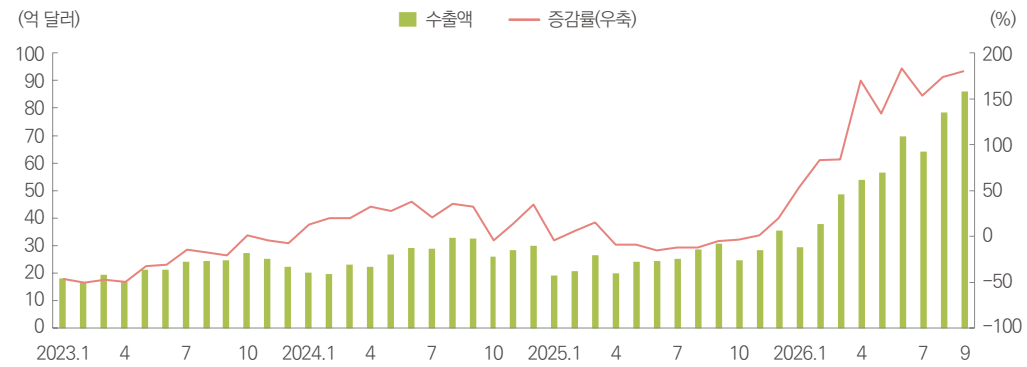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컴퓨터·주변장치: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0.9% 증가하여 85.8억달러를 기록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153.8 → (8월) 174.0 → (9월) 180.9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액(억달러): ('26.7월) 64.0 → (8월) 78.1 → (9월) 85.8

| 그림 12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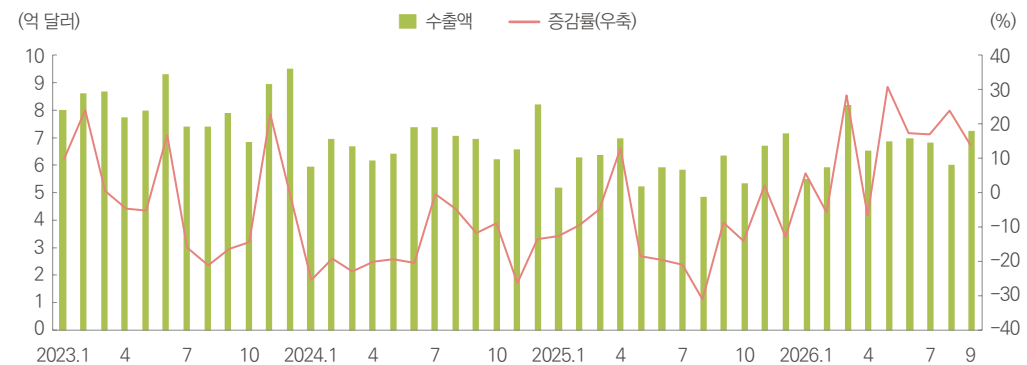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이차전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0% 증가하여 7.2억달러를 기록
 - 이차전지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17.2 → (8월) 24.1 → (9월) 14.0
 - 이차전지 수출액(억달러): ('26.7월) 6.8 → (8월) 6.0 → (9월)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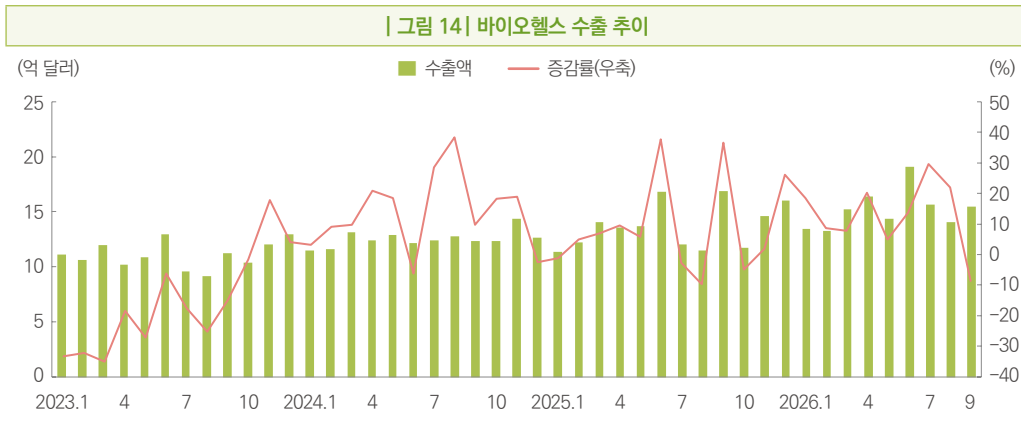
| 그림 13 | 이차전지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바이오헬스: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6% 감소하여 15.5억달러를 기록
 - 바이오헬스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29.9 → (8월) 22.3 → (9월) -8.6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달러): ('26.7월) 15.7 → (8월) 14.1 → (9월) 15.5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주요 유망소비재¹⁴⁾: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12.1% 증가하여 45.0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7월) 22.4 → (8월) 17.7 → (9월) 3.1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액(억달러): ('26.7월) 44.7 → (8월) 40.1 → (9월) 45.0

| 표 2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25				2026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유망소비재(수출액)	40.1	36.5	34.1	43.6	47.5	44.7	40.1	45.0	12.1
유망소비재	20.9	2.3	-4.5	24.4	18.5	22.4	17.7	3.1	
농수산식품	5.0	3.3	3.3	20.8	16.7	2.2	1.5	-4.7	13.3
화장품	20.9	17.9	4.8	25.8	41.2	37.8	38.8	39.8	14.9
패션의류	-1.0	0.5	-0.6	20.1	19.7	4.8	0.6	-2.9	24.5
생활유아용품	15.2	-3.0	-17.4	13.0	-4.6	12.8	-3.4	-5.0	12.5
의약품	52.9	-10.2	-10.7	38.1	16.5	46.4	21.5	-11.7	4.3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14)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5대 유망소비재를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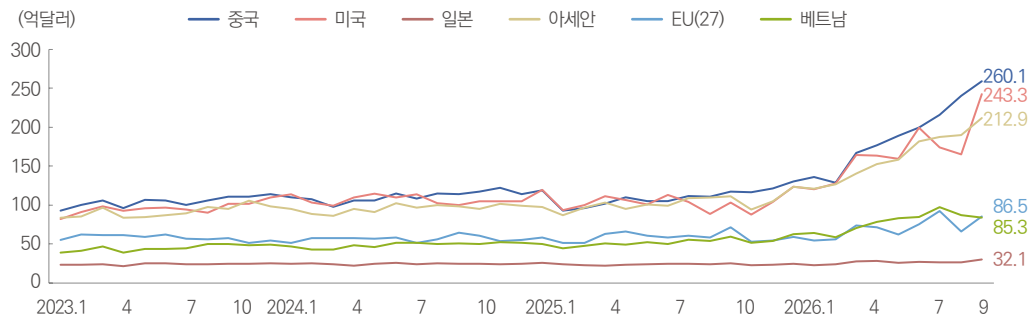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 9월 「10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쟁 지역과 중남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증가

- 대중국 수출은 석유화학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22.7% 증가
 - 대중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¹⁵⁾: (반도체) 320.5%, (무선통신기기) 69.9%, (석유화학) -0.6%
- 대미국 수출은 AI 관련 수요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완성차,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37.0% 증가
 - 대미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반도체) 674.8%, (일반기계) 28.1%, (완성차) 17.2%

| 그림 15 |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3 |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주요 지역별	2025				2026				전월대비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중국	-2.6	-3.0	-3.1	0.5	91.9	96.4	119.4	122.7	7.9
미국	-0.8	1.5	-12.3	-1.4	78.6	69.3	89.2	137.0	47.5
일본	2.4	-4.4	-4.9	3.3	14.7	11.1	13.0	25.3	19.5
아세안	2.5	9.3	11.8	17.7	85.5	74.0	75.4	92.6	11.5
EU(27)	14.4	8.7	-9.8	19.3	31.9	56.1	14.6	20.9	30.6
중동	17.1	-36.6	1.0	17.3	-8.8	23.9	-15.0	-14.1	34.7
중남미	3.2	3.4	-9.7	33.8	35.8	25.5	24.9	-3.5	1.7
CIS	18.5	21.2	8.6	54.0	-0.6	-8.6	-25.2	-38.2	12.1
베트남	-3.7	11.5	6.9	19.0	74.6	78.2	63.4	44.0	-3.3
인도	1.8	10.2	-2.8	17.2	33.0	45.2	47.4	49.7	9.8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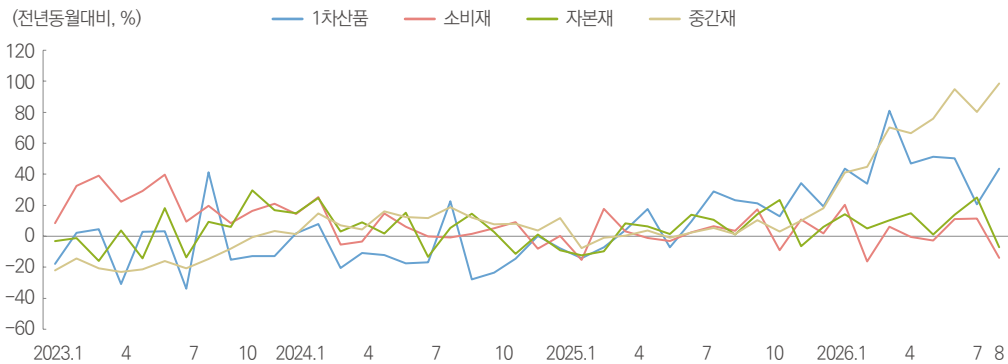
15) 해당 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통계

3 가공단계별 수출

■ 8월 가공단계별 「수출」 중 중간재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증가

- 1차산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3.7%, 전월대비 0.9% 증가
 - 1차산품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50.5 → (7월) 20.4 → (8월) 43.7
- 소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6%, 전월대비 28.9% 감소
 - 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1.2 → (7월) 11.5 → (8월) -14.6
- 자본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5%, 전월대비 27.3% 감소
 - 자본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14.3 → (7월) 25.6 → (8월) -7.5
- 중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9.1%, 전월대비 6.2% 증가
 - 중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 95.4 → (7월) 80.6 → (8월) 99.1

| 그림 16 |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4 |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가공단계별	2025			2026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1차산품	9.6	29.0	23.1	50.5	20.4	43.7	0.9
소비재	2.4	6.3	3.4	11.2	11.5	-14.6	-28.9
자본재	14.3	10.7	0.9	14.3	25.6	-7.5	-27.3
중간재	1.9	5.1	1.0	95.4	80.6	99.1	6.2

자료: 한국무역협회

III

에너지·원자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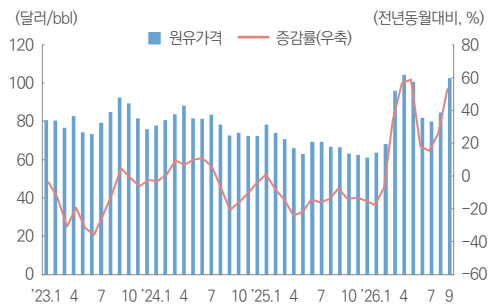
에너지

가. 국제 가격

■ 2026년 9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9월 원유 가격은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중동지역 원유 공급 차질 우려와 사우디 송유관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상승
 -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2.3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3.9%, 전월대비 21.2% 상승
 - 원유 가격(달러/bbl): ('26.7월) 79.8 → (8월) 84.4 → (9월) 102.3
 - 원유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15.3 → (8월) 26.5 → (9월) 53.9

| 그림 1 | 원유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 표 1 | 원유 가격 동향

구분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9월	7월	8월	9월		
Brent	68.0	83.4	90.9	116.8	71.9	28.5
Dubai	67.8	76.7	79.7	93.3	37.7	17.1
WTI	63.7	79.4	82.7	96.9	52.2	17.2
평균 ¹⁾	66.5	79.8	84.4	102.3	53.9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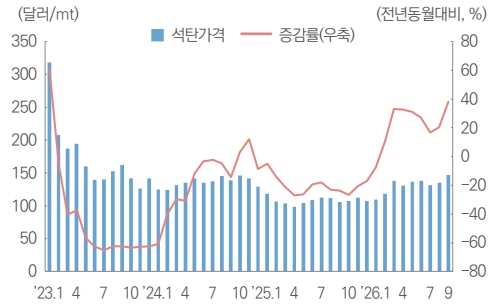
주: Brent, Dubai, WTI의 평균

자료: 세계은행

■ 2026년 9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9월 석탄 가격은 인도 발전소의 석탄 재고 부족에 따른 수입탄 수요 확대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상승
 - 석탄 가격은 톤당 147.1달러(호주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38.4%, 전월대비 8.8% 상승
 - 석탄 가격(달러/mt): ('26.7월) 131.9 → (8월) 135.2 → (9월) 147.1
 - 석탄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16.8 → (8월) 20.6 → (9월) 38.4

| 그림 2 | 석탄 가격 추이



주: 호주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2 | 석탄 원산지별 가격 동향

(단위: 달러/mt, %)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9월	7월	8월	9월		
호주	106.3	131.9	135.2	147.1	38.4	8.8
남아프리카	92.3	96.3	96.8	98.2	6.4	1.4
평균	99.3	114.1	116.0	122.7	23.5	5.7

자료: 세계은행

■ 2026년 9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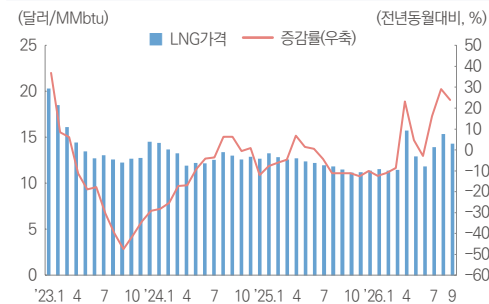
- 9월 천연가스 가격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LNG 공급 차질 우려와 유럽 등 주요국의 천연가스 재고 확충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상승

- 천연가스가격지수는 166.4로 전년동월대비 72.1%, 전월대비 15.3% 상승
- 천연가스가격지수(2010=100): ('26.7월) 130.3 → (8월) 144.3 → (9월) 166.4
- 천연가스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7월) 27.6 → (8월) 49.8 → (9월) 72.1

-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14.3달러(일본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24.2% 상승, 전월대비 6.7% 하락

- 액화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6.7월) 13.9 → (8월) 15.3 → (9월) 14.3
- 액화천연가스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16.3 → (8월) 29.5 → (9월) 24.2

| 그림 3 | LNG 가격 추이



주: 일본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3 | LNG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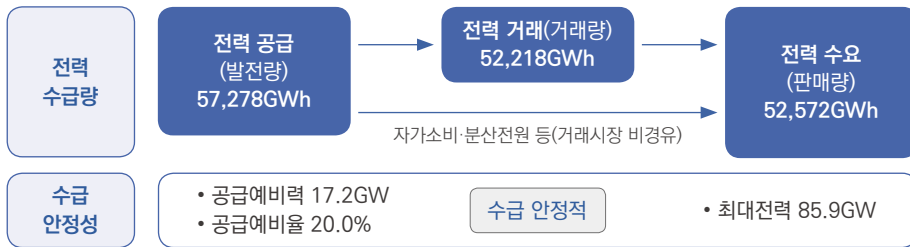
(단위: 달러/MMBtu, %)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9월	7월	8월	9월		
미국 (Henry Hub)	3.0	2.9	2.8	3.0	-0.7	6.5
유럽 (TTF)	11.1	18.1	21.1	25.4	128.6	20.4
일본 (JKM)	11.5	13.9	15.3	14.3	24.2	-6.7

자료: 세계은행

2 전력¹⁶⁾

| 그림 4 | 전력 공급 및 시장 거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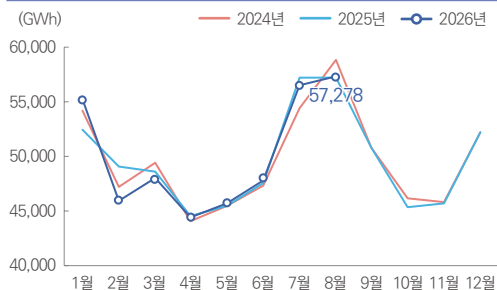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8월 전력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량」과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거래량」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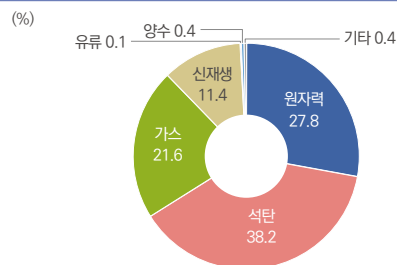
- 발전량은 57,278GWh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기저발전¹⁷⁾ 비중은 66.0%를 차지
 - 발전량(GWh): ('26.6월) 47,713 → (7월) 56,485 → (8월) 57,278
 - 발전량(전년동월대비, %): ('26.6월) 0.4 → (7월) -1.2 → (8월) 0.2
 - 1~8월 누적 발전량은 372,966GWh로 전년(401,840GWh) 수준을 하회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전원믹스)은 석탄 38.2%, 원자력 27.8%, 가스 21.6%, 신재생 11.4% 순

| 그림 5 | 월별 발전량(전력공급)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그림 6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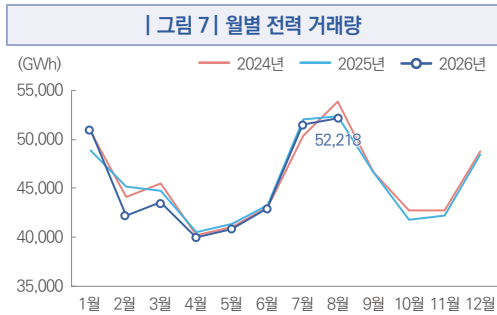
16) 전력 동향에서 사용되는 주요 단위는 다음과 같음

- 전력(Power, 단위: W, kW, MW, GW)은 일정 시점에서의 전기 사용 세기(출력)를 의미하며, 주로 발전설비의 설치용량이나 순간 최대수요를 나타낼 때 사용됨
- 전력량(Energy, 단위: Wh, kWh, MWh, GWh)은 전력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누적량으로, 국가 간 전력의 생산·거래·판매 등 에너지 총량을 집계하는 데 활용됨
- 개념적으로 전력은 물의 흐름의 세기(수압)에,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 축적된 물의 양에 각각 비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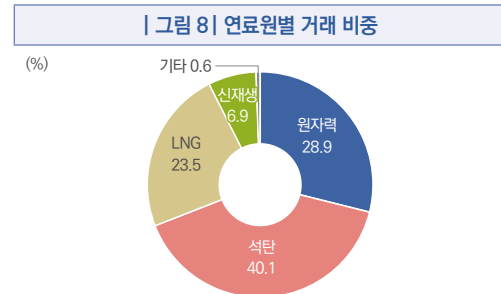
17) 기저발전은 전력수요의 기초부하를 담당하기 위해 24시간 안정적으로 연속 운전되는 발전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원자력 및 석탄발전이 이에 해당함

- 전력거래량¹⁸⁾은 52,218GWh로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¹⁹⁾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전력거래량(GWh): ('26.6월) 42,881 → (7월) 51,588 → (8월) 52,218
- 전력거래량(전년동월대비, %): ('26.6월) -0.8 → (7월) -1.0 → (8월) -0.3
- 1~8월 누적 전력거래량은 364,179GWh로 전년(368,126GWh) 수준을 하회
- 연료원별 비중은 석탄 40.1%, 원자력 28.9%, LNG 23.5%, 신재생 6.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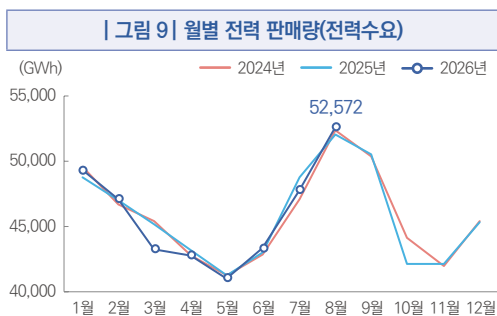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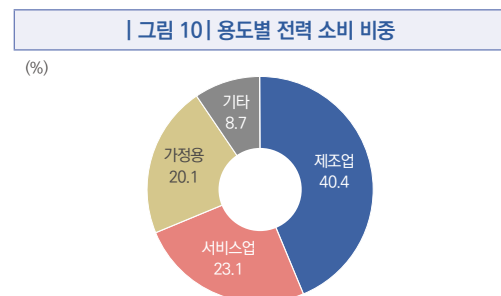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전력판매량은 52,572GWh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전력판매량(GWh): ('26.6월) 43,269 → (7월) 47,719 → (8월) 52,572
- 전력판매량(전년동월대비, %): ('26.6월) 0.6 → (7월) -2.3 → (8월) 0.9
- 1~8월 누적 전력판매량은 366,962GWh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
-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제조업 40.4%, 서비스업 23.1%, 가정용 20.1% 순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주: 기타는 공공용, 농수산업, 광업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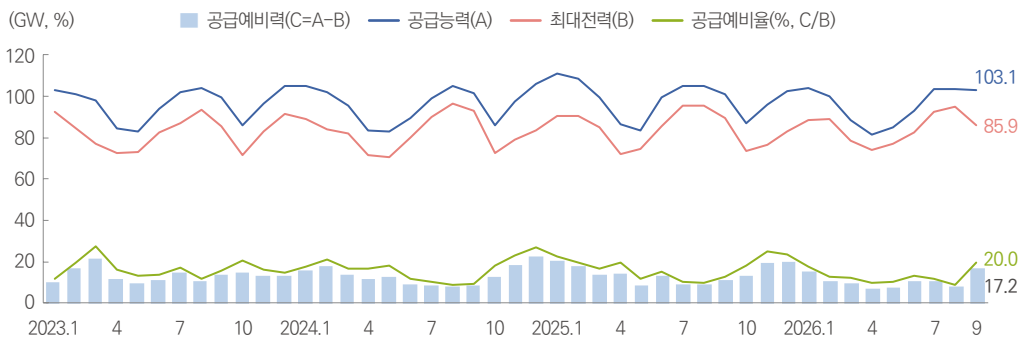
18)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거래량(PPA거래량 불포함)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 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19) 2025년 8월 조업일수: 22.5일, 2026년 8월 조업일수: 22.0일

■ 9월 전력 수급 안정성은 「최대전력」,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등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최대전력은 85.9GW로 전년동월대비 4.1% 감소
 - 최대전력(GW): ('26.7월) 92.9 → (8월) 95.3 → (9월) 85.9
 - 최대전력(전년동월대비, %): ('26.7월) -2.9 → (8월) -0.7 → (9월) -4.1
- 공급예비력은 17.2GW, 전력공급예비율은 20.0%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²⁰⁾
 - 공급예비력(GW): ('26.7월) 10.6 → (8월) 8.3 → (9월) 17.2
 - 공급예비율(%): ('26.7월) 11.4 → (8월) 8.7 → (9월)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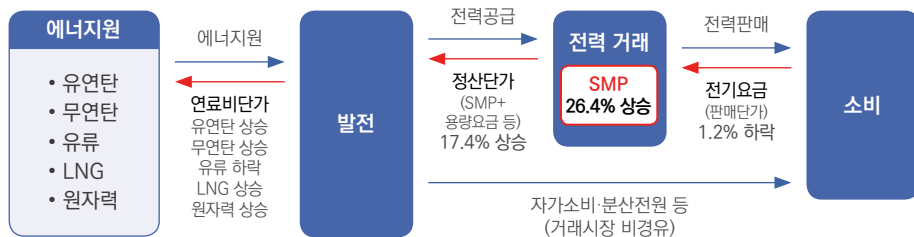
| 그림 11 | 전력 수급 안정성 지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9월 「연료비단가」는 유류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며, 8월 「정산단가」와 「전력도매가격(SMP)」은 상승한 반면 「판매단가」는 하락

| 그림 12 | 전력시장 주요 가격 지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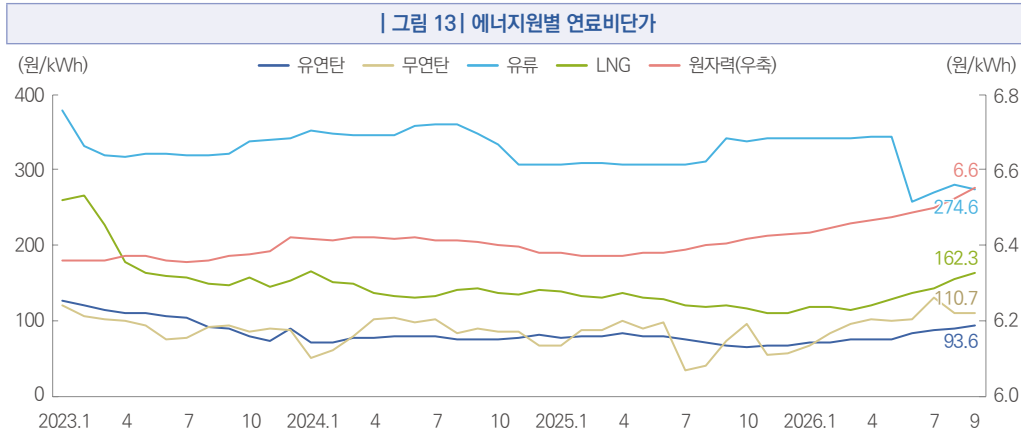
주: 가격지표 변동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9월 발전사가 연료 공급사로부터 구입한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는 전년동월대비 유류는 하락한 반면,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LNG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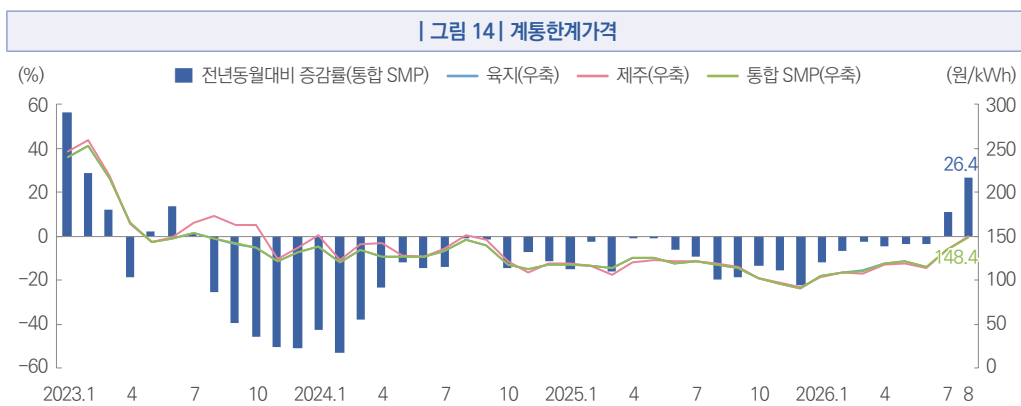
- 연료비단가(원/kWh): (원자력)6.6, (유연탄)93.6, (무연탄)110.7, (유류)274.6, (LNG)162.3
- 연료비단가(전년동월대비, %): (원자력)2.3, (유연탄)40.0, (무연탄)53.6, (유류)-19.8, (LNG)34.6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8월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시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kWh당 148.4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6.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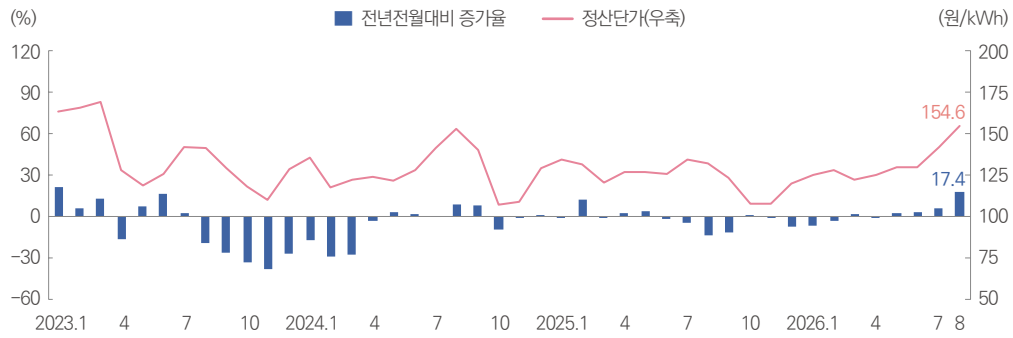
- 석탄 및 LNG 열량단가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31.4%, 38.0% 상승하면서 SMP가 전년동월대비 26.4% 상승
- 통합 SMP(원/kWh): ('26.6월) 114.1 → (7월) 133.8 → (8월) 148.4
- 통합 SMP(전년동월대비, %): ('26.6월) -3.3 → (7월) 11.1 → (8월) 26.4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8월 전력거래소의 발전사 지급 정산단가는 kWh당 154.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
 - 정산단가(원/kWh): ('26.6월) 129.9 → (7월) 142.1 → (8월) 154.6
 - 정산단가(전년동월대비, %): ('26.6월) 3.3 → (7월) 5.6 → (8월)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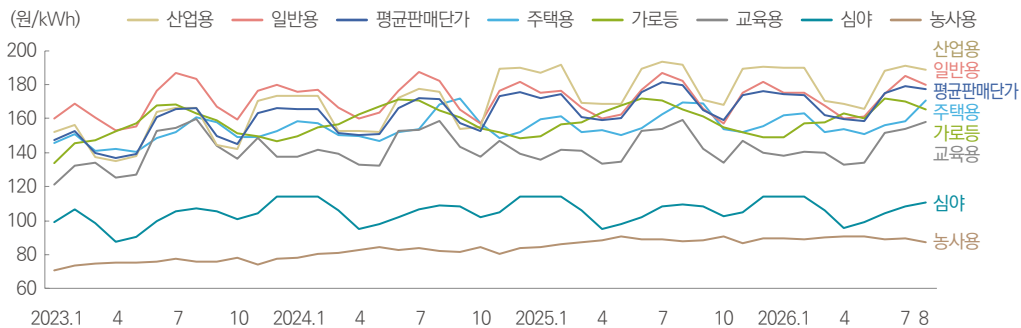
| 그림 15 | 정산단가



주: 정산단가 = (거래금액 - RPS의무이행비용 - 예측제도정산금) ÷ 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8월 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받은 kWh당 평균 판매단가는 177.7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2% 하락
 - 판매단가(원/kWh): ('26.6월) 175.2 → (7월) 179.7 → (8월) 177.7
 - 판매단가(전년동월대비, %): ('26.6월) -0.6 → (7월) -1.2 → (8월) -1.2
 - 1~8월 누적 판매단가는 kWh당 170.5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0.4% 하락
 - 계약종별 kWh당 판매단가의 경우 산업용은 189.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하락, 일반용은 180.0원으로 1.3% 하락, 주택용은 171.3원으로 0.8% 상승
 - 산업용 판매단가(원/kWh): ('26.6월) 188.7 → (7월) 191.3 → (8월) 189.0
 - 일반용 판매단가(원/kWh): ('26.6월) 174.6 → (7월) 185.5 → (8월) 180.0
 - 주택용 판매단가(원/kWh): ('26.6월) 155.8 → (7월) 158.8 → (8월) 171.3

| 그림 16 | 계약종별 전력 판매단가



주: 일반용은 주택·산업용 등 타 종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및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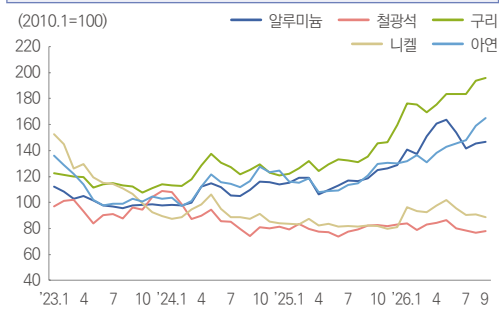
3

비철금속

■ 2026년 9월 「비철금속」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9월 비철금속 가격은 주요 구리 생산국의 공급 차질과 중국의 재고 감소 및 비축 수요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상승
 - 비철금속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0.4%, 전월대비 0.9% 상승
 - 비철금속 가격지수(2010=100): ('26.7월) 141 → (8월) 146 → (9월) 148
 - 비철금속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7월) 27.4 → (8월) 32.9 → (9월) 30.4
- 알루미늄 가격은 중국의 재고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3.7%, 전월대비 1.0% 상승
 - 알루미늄 가격(달러/톤): ('26.7월) 3,161 → (8월) 3,251 → (9월) 3,283
 - 알루미늄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21.3 → (8월) 25.2 → (9월) 23.7
-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철강 수요 둔화와 주요 생산국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4%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1.5% 상승
 - 철광석 가격(달러/톤): ('26.7월) 98 → (8월) 96 → (9월) 98
 - 철광석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1.0 → (8월) -3.4 → (9월) -5.4
- 구리 가격은 칠레 등 주요 생산국의 광산 생산 차질과 중국의 재고 감소 및 비축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5.0%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 1.0% 상승
 - 구리 가격(달러/톤): ('26.7월) 13,543 → (8월) 14,326 → (9월) 14,474
 - 구리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38.6 → (8월) 48.2 → (9월) 45.0
- 니켈 가격은 인도네시아의 공급 차질 우려로 전년동월대비 8.1%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 2.5% 하락
 - 니켈 가격(달러/톤): ('26.7월) 16,651 → (8월) 16,751 → (9월) 16,324
 - 니켈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10.8 → (8월) 12.1 → (9월) 8.1
- 아연 가격은 중국 정광 공급 부족과 재고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7.1%, 전월대비 8.1% 상승
 - 아연 가격(달러/톤): ('26.7월) 3,599 → (8월) 3,875 → (9월) 4,021
 - 아연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30.3 → (8월) 38.9 → (9월) 37.1

| 그림 17 | 비철금속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LME

| 표 4 | 비철금속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9월	7월	8월	9월		
알루미늄	2,653	3,161	3,251	3,283	23.7	1.0
철광석	103	98	96	98	-5.4	1.5
구리	9,984	13,543	14,326	14,474	45.0	1.0
니켈	15,106	16,651	16,751	16,324	8.1	-2.5
아연	2,933	3,599	3,875	4,021	37.1	3.8

자료: 세계은행, 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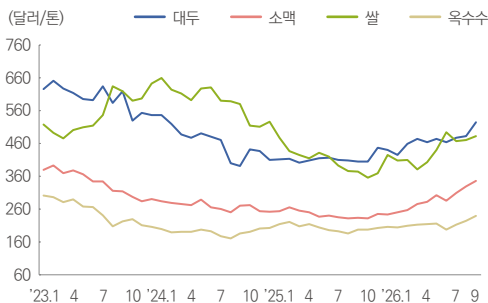
4

곡물

■ 2026년 9월 「곡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9월 곡물 가격은 흑해 지역의 곡물 수출 차질과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곡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5.8%, 전월대비 3.8% 상승
 - 곡물가격지수(2010=100): ('26.7월) 118 → (8월) 120 → (9월) 124
 - 곡물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7월) 9.5 → (8월) 12.0 → (9월) 15.8
- 옥수수 가격은 미국의 생산 감소 전망과 미시시피강 수위 저하에 따른 운송비 상승, 흑해 지역의 수출 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1.4%, 전월대비 7.0% 상승
 - 옥수수 가격(달러/톤): ('26.7월) 213 → (8월) 224 → (9월) 240
 - 옥수수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11.1 → (8월) 20.8 → (9월) 21.4
- 대두 가격은 미국의 건조한 기상에 따른 작황 저하 우려와 미국산 대두 수출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9.7%, 전월대비 8.7% 상승
 - 대두 가격(달러/톤): ('26.7월) 478 → (8월) 482 → (9월) 524
 - 대두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16.6 → (8월) 18.4 → (9월) 29.7
- 소맥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항만·선박 공격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호주산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8.4%, 전월대비 5.2% 상승
 - 소맥 가격(달러/톤): ('26.7월) 310 → (8월) 330 → (9월) 347
 - 소맥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31.9 → (8월) 42.8 → (9월) 48.4
- 쌀 가격은 인도의 몬순 강우 부족에 따른 생산 감소 우려와 태국의 우천에 따른 수확·출하 지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8.9%, 전월대비 2.3% 상승
 - 쌀 가격(달러/톤): ('26.7월) 467 → (8월) 471 → (9월) 482
 - 쌀 가격(전년동월대비, %): ('26.7월) 19.1 → (8월) 25.6 → (9월) 28.9

| 그림 18 | 곡물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ME

| 표 5 | 곡물 가격 동향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9월	7월	8월	9월		
옥수수	197	213	224	240	21.4	7.0
대두	404	478	482	524	29.7	8.7
소맥	234	310	330	347	48.4	5.2
쌀	374	467	471	482	28.9	2.3

자료: 세계은행, CME

IV

환경

1

배출권거래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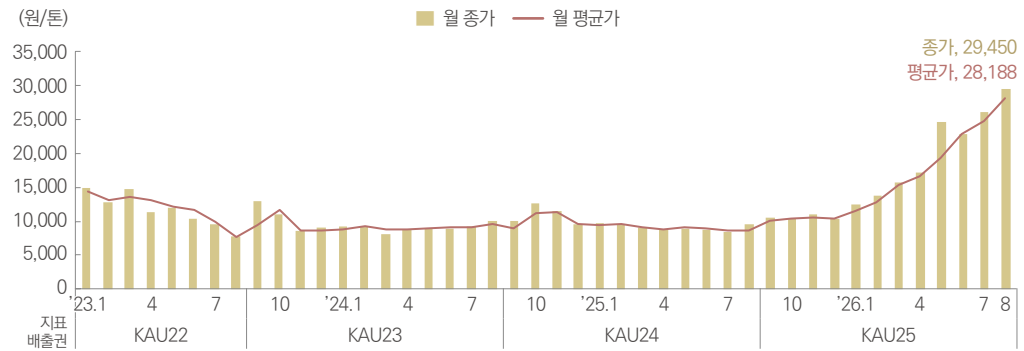
■ 8월 「지표배출권(KAU25)」의 평균가와 증가는 전월대비 상승

- KAU25²²⁾ 평균가는 톤당 28,188원으로 전월(24,842원) 대비 3,346원 상승
 - KAU25 평균가(원/톤): ('26.6월) 22,806 → (7월) 24,842 → (8월) 28,188
- KAU25 증가는 톤당 29,450원으로 전월(25,950원) 대비 3,500원 상승
 - KAU25 증가(원/톤): ('26.6월) 22,800 → (7월) 25,950 → (8월) 29,450
- KAU25의 최저가는 톤당 25,650원('26.8.3), 최고가는 30,100원('26.8.20)을 기록
- (가격 상승 요인) ①2025년도분 배출권 제출기한('26.8월 말)을 앞두고 할당업체의 부족분 확보 수요가 집중 ②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 축소(전 계획기간 대비 약 17% 감소) 및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확대(2026년 15% → 2030년 50% 단계적 확대)에 따른 수급 긴축 기조 지속 ③유상할당(경매) 평균 낙찰가격도 '26.7월 25,400원에서 8월 27,900원으로 상승
- (가격 변동성 요인) 8월 말 제출기한 경과 이후에는 정산 수요가 소멸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

21)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은 ① 할당 배출권(KAU) ② 상쇄배출권(KCU)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구분되며 「NABO 산업동향&이슈」에서는 주요 배출권인 할당 배출권인 KAU를 살펴봄

22) 배출권거래제에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이며, 1KAU는 이산화탄소(CO₂) 1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의미. KAU 뒤에 붙는 숫자는 해당연도의 탄소배출권을 나타냄

| 그림 1 | 배출권 장내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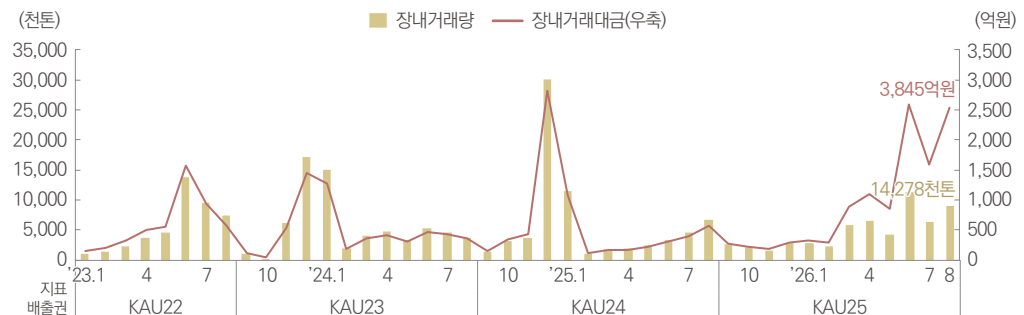


주: 평균가격은 장내거래(협약+경매) 할당배출권의 거래대금/거래량으로 산정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8월 「지표배출권(KAU25)」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월대비 증가

- KAU25의 거래량은 14,278천톤으로 전월대비 3,814천톤 증가
 - KAU25 거래량(천톤): ('26.6월) 13,029 → (7월) 10,464 → (8월) 14,278
- KAU25의 장내거래량은 9,008천톤, 유상할당(경매)량은 2,830천톤, 장외거래량은 2,441천톤
 - KAU25 장내거래량(천톤): ('26.6월) 11,358 → (7월) 6,409 → (8월) 9,008
- KAU25의 거래대금은 3,845억원으로 전월대비 1,257억원 증가
 - KAU25 거래대금(억원): ('26.6월) 2,975 → (7월) 2,588 → (8월) 3,845
- KAU25의 장내거래 대금은 2,539억원, 유상할당(경매) 대금은 790억원, 장외거래 대금은 516억원
 - KAU25 장내거래대금(억원): ('26.6월) 2,590 → (7월) 1,592 → (8월) 2,539
- 8월 거래량·거래대금 증가는 배출권 제출기한('26.8월 말)을 앞둔 정산기 매수세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부족분 확보 수요가 집중되며 장내거래량('26.7월 6,409천톤 → 8월 9,008천톤)과 장외거래량(1,225천톤 → 2,441천톤)이 동반 증가

| 그림 2 | 배출권 장내 거래량 및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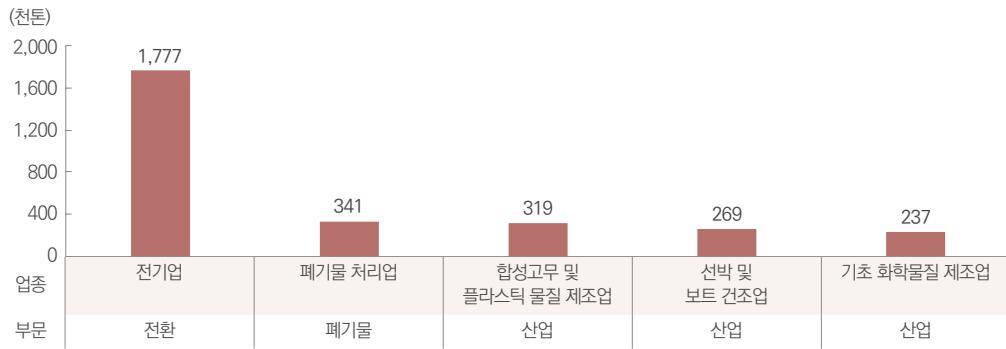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8월 업종별 장내거래 최대 매수업은 전기업, 최대 매도업은 반도체 제조업

-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①전기업, ②폐기물 처리업, ③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순
 - 업종별 매수량(천톤): 전기업(1,777), 폐기물 처리업(34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319)
 - 배출권 제출기한('26.8월 말)을 앞둔 부족분 확보 수요로 전기업 매수량이 3개월 연속 증가 ('26.6월 1,599천톤 → 7월 1,697천톤 → 8월 1,777천톤)

| 그림 3 | 매수 상위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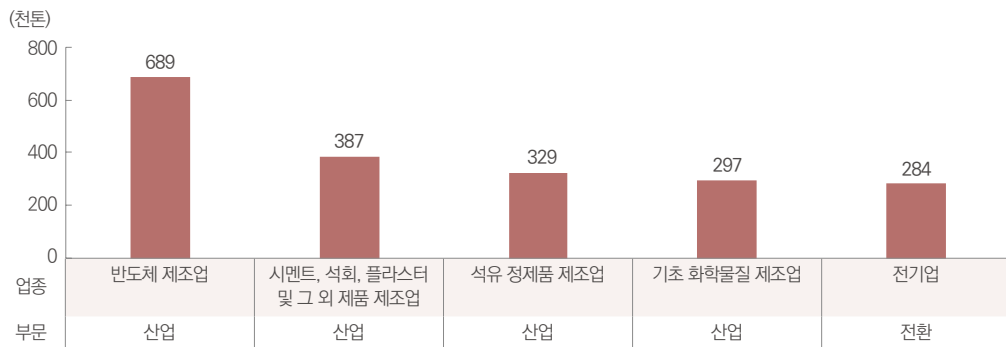
주: KAU25, 26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매도 상위 3개 업종은 ①반도체 제조업, ②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③석유 정제품 제조업 순

- 업종별 매도량(천톤): 반도체 제조업(689),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387), 석유 정제품 제조업(329)

| 그림 4 | 매도 상위업종



주: KAU25, 26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2

재활용가능자원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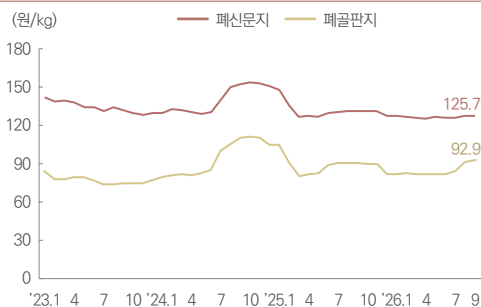
■ 9월 「국내 폐지」 평균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 폐신문지 가격은 kg당 125.7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2% 하락
 - 폐신문지(원/kg): ('26.7월) 124.5 → (8월) 125.9 → (9월) 125.7
- 폐골판지 가격은 kg당 92.9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8% 하락
 - 폐골판지(원/kg): ('26.7월) 83.8 → (8월) 91.2 → (9월) 92.9

■ 9월 「국내 폐플라스틱」 중 PET(압축), PP(플레이크), PP(펠렛)의 평균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EPS(잉고트)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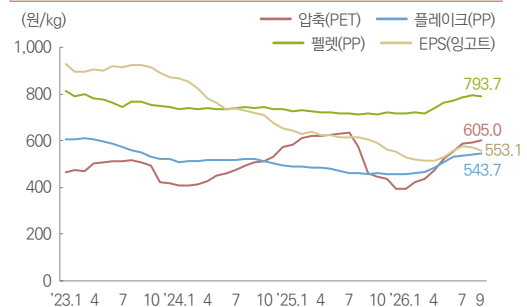
- PET²⁴⁾ 압축 가격은 kg당 605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8% 상승
 - PET 압축(원/kg): ('26.7월) 589.4 → (8월) 595.8 → (9월) 605.0
- PP²⁵⁾ 플레이크 가격은 kg당 543.7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상승
 - PP 플레이크(원/kg): ('26.7월) 535.3 → (8월) 539.1 → (9월) 543.7
- PP 펠렛 가격은 kg당 793.7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상승
 - PP 펠렛(원/kg): ('26.7월) 788.8 → (8월) 795.9 → (9월) 793.7
- EPS²⁶⁾ 잉고트 가격은 kg당 553.1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3% 하락
 - EPS 잉고트(원/kg): ('26.7월) 572.8 → (8월) 571.7 → (9월) 553.1

| 그림 5 | 전국 폐지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그림 6 | 전국 폐플라스틱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3) 한국환경공단은 매월 10일 5종 26개 품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행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를 발표

24)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은 무색이며 단단하고 충격에도 비교적 강한 플라스틱으로 음료수병, 생수병 등으로 활용

25) PP(Polypropylene)는 가벼우며,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으로 주류, 음료 상자 등으로 활용

26) EPS(Expanded Polystyrene)는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한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 제품으로 흔히 스티로폼(상품명)이라 부르며 전자제품, 식품 포장 등으로 활용

■ 9월 「폐유리병」 평균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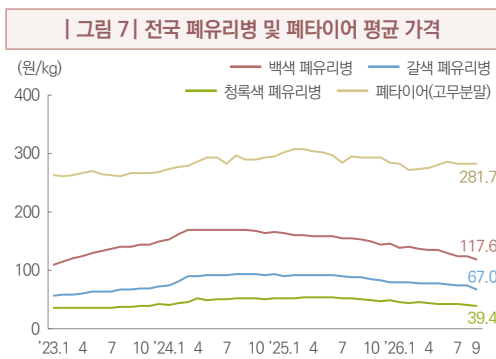
- 유리병(백색) 컬렛²⁷⁾ 가격은 kg당 117.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1.3% 하락
 - 유리병(백색) 컬렛(원/kg): ('26.7월) 123.4 → (8월) 124.4 → (9월) 117.6
- 유리병(갈색) 컬렛 가격은 kg당 67.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3% 하락
 - 유리병(갈색) 컬렛(원/kg): ('26.7월) 74.5 → (8월) 75.4 → (9월) 67.0
- 유리병(청록색) 컬렛 가격은 kg당 39.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9% 하락
 - 유리병(청록색) 컬렛(원/kg): ('26.7월) 42.0 → (8월) 40.6 → (9월) 39.4

■ 9월 「페타이어(고무분말)」 평균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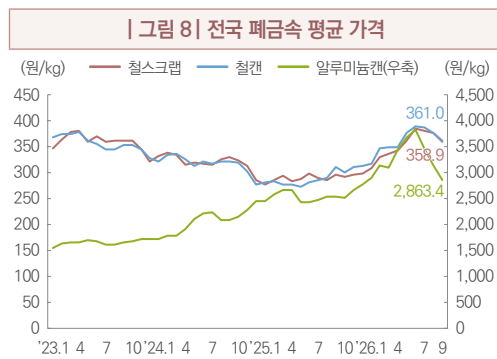
- 페타이어(고무분말)²⁸⁾ 가격은 kg당 281.7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하락
 - 페타이어(고무분말, 원/kg): ('26.7월) 282.2 → (8월) 281.7 → (9월) 281.7

■ 9월 「폐금속」 평균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철스크랩²⁹⁾ 가격은 kg당 358.9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9% 상승
 - 철스크랩(원/kg): ('26.7월) 382.3 → (8월) 376.5 → (9월) 358.9
- 철캔 가격은 kg당 361.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0% 상승
 - 철캔(원/kg): ('26.7월) 386.9 → (8월) 377.3 → (9월) 361.0
- 알루미늄캔 가격은 kg당 2,863.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8% 상승
 - 알루미늄캔(원/kg): ('26.7월) 3,463.2 → (8월) 3,141.5 → (9월) 2,863.4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7) 컬렛(Cullet)은 유리병을 일정 크기로 파쇄한 상태

28) 페타이어를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재활용 소재

29) 사용 후 폐기된 철강 제품이나 철을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고철이라고도 함



산업 이슈

최근 건설비용 상승 요인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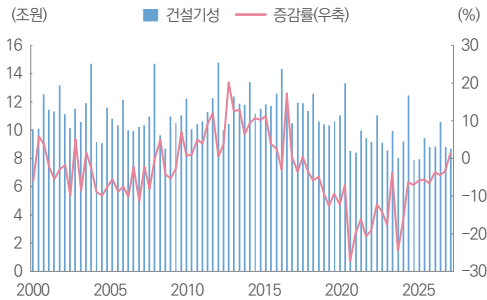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김용균 경제분석관

1 검토배경

■ 건설기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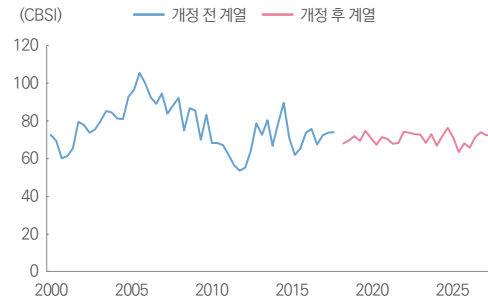
- 건설기성은 2026년 8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전환하였지만 2024년 5월부터 27개월 동안 감소를 지속하였음
- 건설경기실사지수¹⁾는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100을 하회하며 건설기업들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반영

| 그림 1 | 건설기성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2 |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주: 2024년 5월 지수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재료비, 노무비, 금융비 등 건설비용 증가가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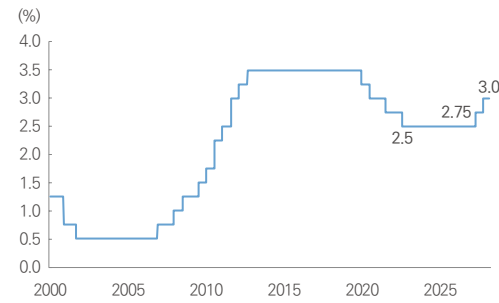
- 건설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건설비용 증가,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 자금 유동성 제약 등이 있음
- 재료비, 노무비 등 건축물 시설물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나 인력에 대한 비용이 최근 크게 상승²⁾하며 주요 원인으로 지목

1) 건설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매월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되는 지수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건설기업들이 체감한 경기수준을 나타냄

2) 권현진, 「건설공사의 건축비 상승 실태 및 원인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24.12.31.

- 건설자재 가격은 2020년 팬데믹(Pandemic) 발 공급망 교란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유례없는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며 건설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건설업 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³⁾
- 청년층에서 고된 노동 강도, 위험한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건설업 진입을 회피하면서 건설인력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며 실질적인 노무비가 증가
-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지만 건설비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인상되며 금융비용이 증가
 - 2020~2022년 팬데믹 기간 중 낮은 금리로 유동성이 확대되며 물가가 높아졌으며 이후 금리가 높아지며 금융비용이 상승

| 그림 3 | 기준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 표 1 | 건물신축단가표

(단위: 원/㎡, %)

	2020	2025	증가율
다가구 주택	1,606,930	2,079,879	29.4
아파트	1,503,878	1,927,375	28.2
연립주택	1,829,834	2,329,450	27.3
오피스텔	1,597,091	1,945,741	21.8
근린생활시설	1,517,854	1,920,997	26.6
공장	832,375	1,053,375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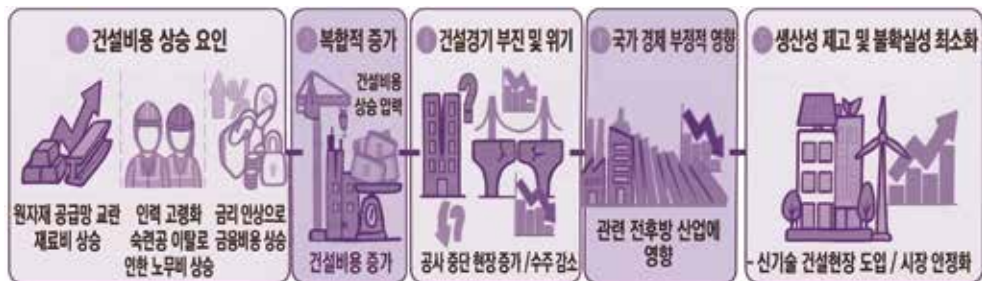
주: 2020년은 2021년 적용, 2025년은 2026년 적용 단가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각 연도.

■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비용의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은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건설업의 침체는 관련 전후방산업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 중 건설비용 증가 요인을 살펴보고 대응 과제를 검토하며 시사점을 도출

| 그림 4 | 건설비용 상승의 영향



자료: SI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자재 공사비 리스크 완화 방안," 「건설동향 BRIEFing」, 제1044호, 2026.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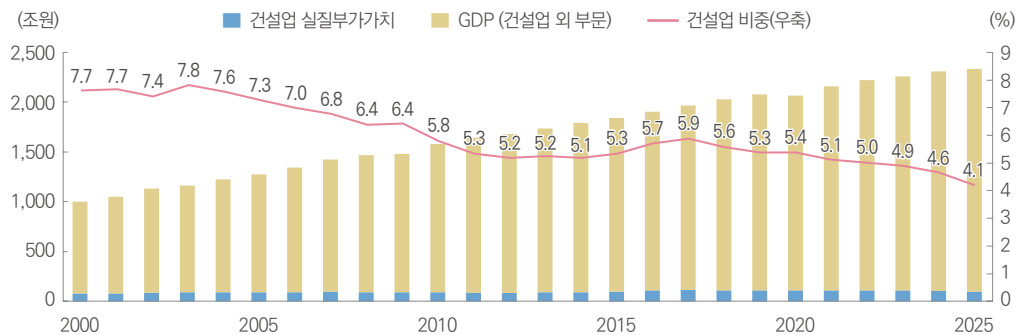
2

건설업 현황

■ 최근 국가경제에서의 건설업의 비중은 하락 추세이지만,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산업 평균을 상회

- 202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건설업의 비중은 4.1%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감
 - 2000년 GDP 중 7.7%의 비중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건설업 경기 부진이 겹치며 그 비중이 크게 하락⁴⁾
 -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설업 비중은 2017년에 5.9%까지 잠시 회복되기도 하였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그림 5 |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업 비중



주: 2025년 통계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에 의하면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⁵⁾, 취업유발계수⁶⁾는 모두 전산업 평균 수준을 상회
 - 건설업은 건설자재 생산, 인테리어 자재 생산, 부동산 임대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전후방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

4) 국내 경제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산업의 비중이 커지며 건설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의 비중이 하락(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대한민국 경제」, 2026.7.16.)

5) 생산(부가가치)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6) 취업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 수를 의미

| 표 2 |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건설업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2000	1.925	1.723	0.818	0.771	23.1	25.7
2005	1.943	1.777	0.806	0.769	17.6	20.3
2010	2.081	1.814	0.758	0.717	13.4	13.8
2015	1.997	1.813	0.804	0.774	12.5	11.8
2020	1.970	1.804	0.833	0.806	10.5	9.7
2024	2.001	1.808	0.796	0.759	8.9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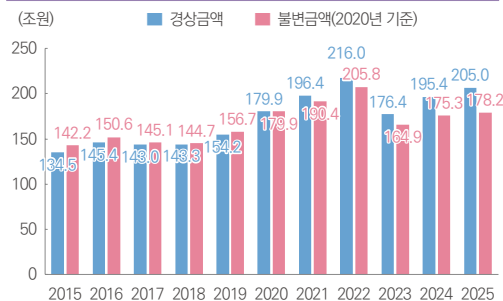
주: 2015년까지 2015년 기준, 2020년 이후는 2020년 기준 유발계수

자료: 한국은행

■ 건설수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착공은 지연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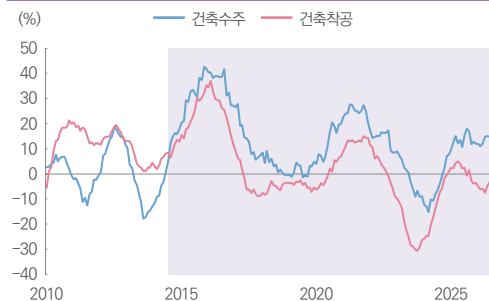
- 건설수주는 경상액 기준 2025년 전년대비 4.9% 증가(2020년 기준 불변금액으로는 1.6%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
 - 2022년의 216.0조원(2020년 기준 불변금액은 205.8조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간 건설수주액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건설수주 후 착공, 기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8월 건설수주 증가세가 착공의 증가세를 앞선 이후 건설수주의 증가세가 착공의 증가세를 상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더욱이 전국 미분양 주택⁷⁾은 6만 5,000호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⁸⁾은 약 3만 호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후 착공 지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그림 6 | 건설수주액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 그림 7 | 건축수주와 건축착공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에 대한 18개월 이동평균⁹⁾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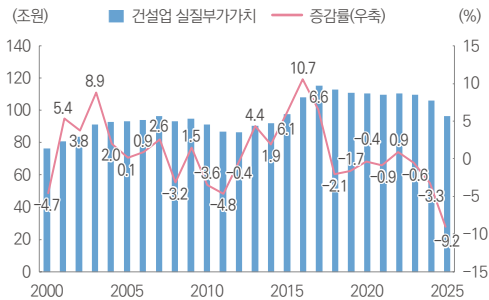
7) 미분양 주택은 건설업체나 사업주체가 분양을 실시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분양되지 않고 남은 주택을 의미

8) 준공 후 미분양은 주택을 지어 사용검사(준공)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을 의미

9) 건설업 특유의 긴 사업 기간과 계절적 변동성의 영향을 제거하여 실제 추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18개월 이동평균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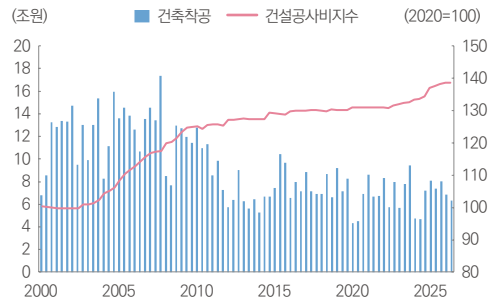
- 건설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2022년부터 이에 따른 착공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2022년부터 착공이 크게 감소하며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도 크게 감소
 - 2020년 건설공사비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중에도 건축착공의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후 건축착공이 건설공사비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건설공사비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함¹⁰⁾
 - 2020년의 건설공사비와 건설착공의 상관관계수는 0.39로 양(+)의 관계를 보이는데 반하여 2021년 이후의 상관관계수는 -0.69로 부(-)의 관계가 강해짐
 - 산업 전반의 고비용 생산 구조가 고착화되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노무비·물류비·에너지 비용 상승이 이를 상쇄하며 하방 경직성이 강화¹¹⁾되고 있어 건설업 경기의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림 8 |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추이



주: 2025년 통계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 그림 9 | 건설공사비와 건설착공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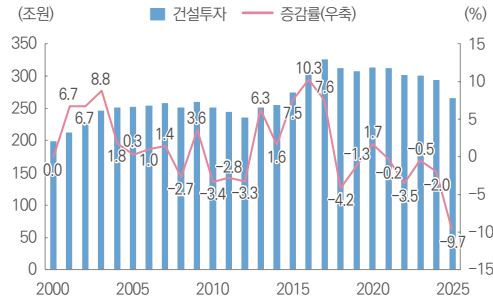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20년 전년대비 1.7% 증가하며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전년대비 9.7%로 크게 감소
 -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에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13.2%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 2025년 건축과 토목 부문 건설투자 각각 10.5%, 8.0% 감소하며 건축과 토목 부문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

10) 이경태, "공사 기간 및 비용 중심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시사점,"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61호, 2026.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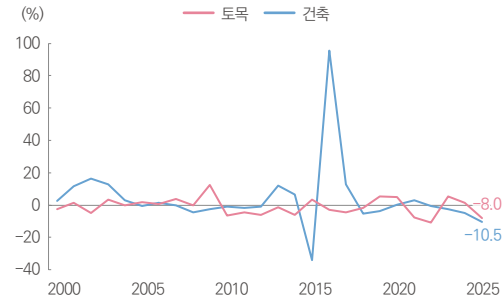
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 「건설 BRIEF」, 제102호, 2026.5.7.

| 그림 10 | 건설투자 추이



주: 2025년 통계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 그림 11 | 부문별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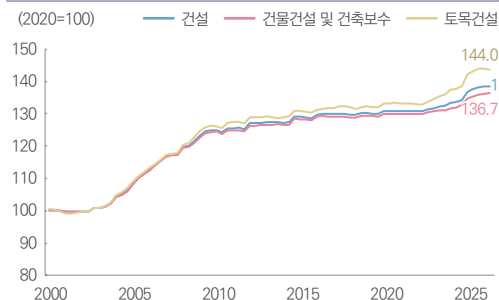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건설업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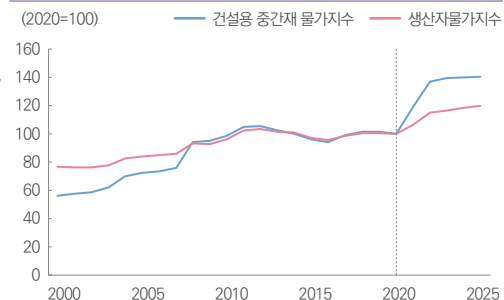
- 2025년 상반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건설공사비지수¹²⁾는 2025년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 더 급한 상승세를 보임
 - 건설공사비지수는 2026년 8월 138.7을 기록한 가운데,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는 136.7, 토목건설은 144.0을 기록
- 건설자재 가격은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여 건설업 경기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
 - 공사비 상승 원인 중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자재비 영향이 더욱 큼
 - 2020년을 기점으로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가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상회하며 타 산업 대비 원가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¹³⁾

| 그림 12 | 건설공사비 지수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그림 13 | 생산자물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12)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공사비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 지수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월별로 발표

1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자재 공사비 리스크 완화 방안," 「건설동향 BRIEFing」, 제1044호, 2026.2.13.

■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이 감소하며 건설인력 고령화와 고급인력의 산업이탈이 발생

- 2006년 말 건설업 재직자의 평균연령은 39.5세였으나 2026년 3월에는 52.4세로 크게 상승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건설인력 고령화는 고급기술인력의 건설업 현장 이탈로도 이어져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
 - 건설사업 현장의 취약한 근로조건, 명확한 경력 개발 경로 부재, 세대 간 현장 문화 갈등 등 청년층의 건설업으로의 유입 감소는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닌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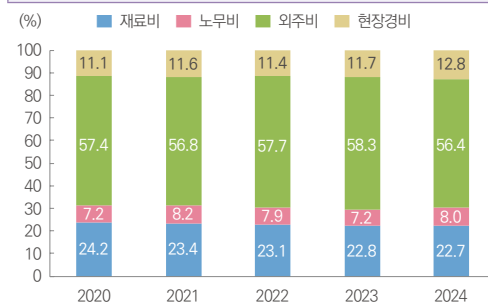
건설공사비 상승 요인

가. 건설비용의 구성

■ 건설비용은 건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에 따라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

- 재료비, 노무비 등은 건설재료와 건설인력의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 투입에 대한 비용으로 건설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살펴보면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각 요소별 비용의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일정함을 알 수 있음
 -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2024년 연장표 기준 중간투입요소¹⁴⁾의 비중을 살펴보면 재료, 노무, 서비스가 각각 47.8%, 35.4%, 16.8%를 기록
 -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중간재는 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인력의 중간 투입액은 재료의 74% 수준
- 금융비용은 건설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킴
 -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하여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사업 진행에 있어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금융비용은 간접비용으로 공사비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산업연관표는 금융거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산업연관표에서는 식별이 곤란

| 그림 14 | 공사비 원가 구성비



자료: 대한건설협회

| 표 3 | 산업연관표 중간투입 비중

(단위: %, 조원)

	재료	노무	서비스
중간투입 비중	47.8	35.4	16.8
중간투입액	146.6	108.6	51.4

주: 2024년 연장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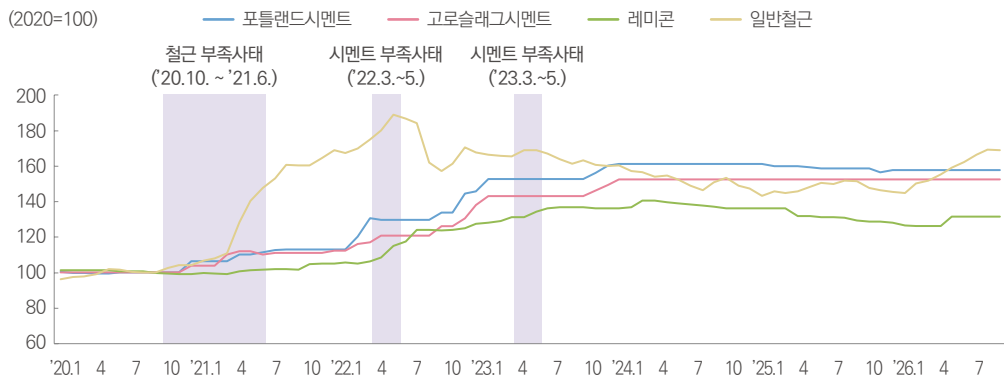
14) 중간재 투입비중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공사비 원가 통계보다 투입 요소의 범위가 더 포괄적

나. 재료비용

■ 2020년 하반기부터 여러 건설재료의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건설비용이 증가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철근 부족사태가 발생하며 일반철근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건설비용이 급격히 증가
 - 철근 부족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글로벌 원자재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 2022년과 2023년에는 시멘트 부족사태가 발생하며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이 상승하며 건설비용이 증가
 - 여러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시공 문제 발생으로 강화된 품질 기준이 적용되어 시멘트 사용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계절적 요인과 물류 교란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
- 일시적 대외 충격에 의한 비용상승에 더하여 산업 전반의 고비용 생산 구조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 하더라도 노무비·물류비·에너지 비용 상승이 이를 상쇄하며 하방 경직성이 강화¹⁵⁾

[그림 15] 주요 건설자재 가격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건설재료는 국내 생산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내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음

-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건설재료는 주로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외 경제충격이 발생하여도 국내 건설재료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
 - 2024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기준 건설업의 수입의존도는 3.7%로 제조업의 23.0%, 서비스업의 5.6%보다 낮은 수준
 - 투입량이 많은 철근 및 봉강이 총산출액 대비 수입액 비중이 0.322%로 상대적으로 수입액 비중이 큰 상황

15)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 「건설 BRIEF」, 제102호, 2026.5.7.

| 표 4 | 주요 건설자재 품목별 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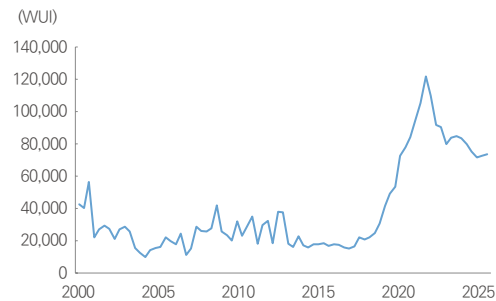
부문	금액(조원)	금액(조원)	비중(%)
	총 거래액	수입액	총산출액 대비 수입액 비중
철근 및 봉강	6.04	0.90	0.322
철강관	4.08	0.23	0.081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	2.09	0.23	0.082
석제품	1.77	0.55	0.196
제재목	1.58	0.31	0.109
합판	1.34	0.53	0.189
조명장치	1.28	0.33	0.118
건설용 비내화요업제품	0.95	0.53	0.187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0.74	0.25	0.090
밸브	0.72	0.39	0.137

주: 산업연관표 2020년 실측표 기준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달러 환율 상승, 국내 건설산업 부정적 영향 우려,” 「건설동향 BRIEFing」, 제990호, 2025.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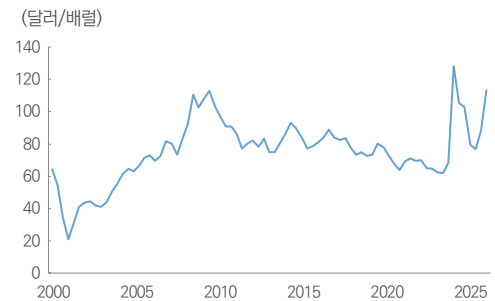
■ 대외 경제충격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나 그 충격이 장기화되면 다른 산업부문을 통하여 국내 자재 시장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러·우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중동전쟁 또한 장기화되면서 일시적인 대외 경제충격으로 그치지 않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자재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다른 산업 부문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운송비의 가격에 대한 상방 압력에 노출

| 그림 16 | 세계 불확실성 지수¹⁶⁾

자료: World Uncertainty Index

| 그림 17 | 유가 변동 추이



주: 두바이(Dubai)유 기준

자료: 페트로넷

16) 세계 불확실성 지수(World Uncertainty Index, WUI)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국가 보고서에서 ‘불확실성(또는 그 변형)’이라는 단어의 비율을 산출하여 전 세계와 각국의 경제 및 정치적 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수치화한 글로벌 지표

• 원유 가격 상승은 건축보다는 토목공사에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¹⁷⁾

- 토목건설 공사의 경우 유가 상승의 영향은 수입의존도가 큰 재료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
- 토목건설 공사 중에는 도로시설 공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토목, 하천 사방, 항만 및 농림수산토목 순으로 비용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 공사의 경우 유가 상승의 영향은 토목건설 공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표 5 | 유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생산비용 파급효과

구분		유가 10% 상승
건축물	주거용 건물	0.18% 상승
	비주거용 건물	0.16% 상승
	건축보수	0.19% 상승
토목건설	도로시설	0.59% 상승
	철도시설	0.25% 상승
	항만시설	0.41% 상승
	하천사방	0.44% 상승
	상하수도시설	0.19% 상승
	농림수산토목	0.41% 상승
	도시토목	0.55% 상승
	환경정화시설	0.09% 상승
	발전소 시설	0.12% 상승
산업시설건설	산업플랜트	0.09% 상승
	기타 건설	0.22% 상승
전체 건설		0.21% 상승

주: 한국은행 2023년 산업연관표 생산자가격 기본부문 표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유 가격 상승이 건설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설동향 BRIEFing」, 제1048호, 2026.3.13.

다. 노무비용

■ 건설업 일반공사직종의 평균임금은 건설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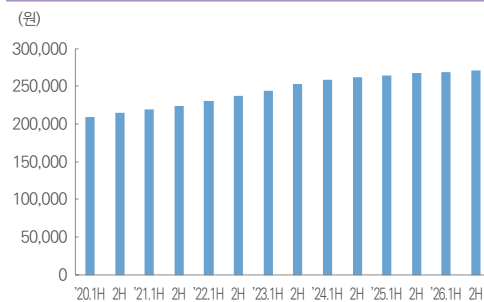
- 건설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건설업 일반공사직종의 평균임금은 오히려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
 - 평균 임금상승률은 3년 연속 둔화세를 보이며 2023년에 전년대비 6.71% 상승 후 2024년에 3.30% 2025년에 1.66% 상승에 그치고 있음

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유 가격 상승이 건설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설동향 BRIEFing」, 제1048호, 2026.3.13.

■ 건설인력 임금의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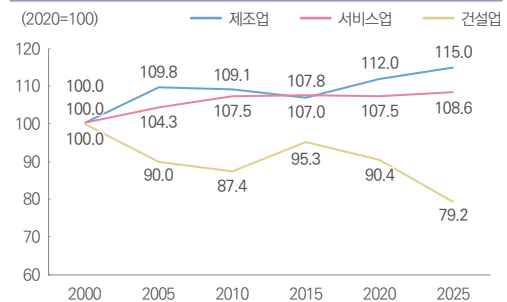
- 2025년 기준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79.2로 제조업(115.0), 서비스업(108.6)에 대비하여 크게 낮은 상황
 - 월평균 근로시간의 감소는 전산업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건설경기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의 하락 속도는 매우 가파른 편¹⁸⁾
 -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하락은 건설인력의 임금상승이 둔화되었음에도 동일 투입량 대비 산출물이 적어 실질적인 건설비용 상승의 효과를 보임

| 그림 18 | 건설업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19 |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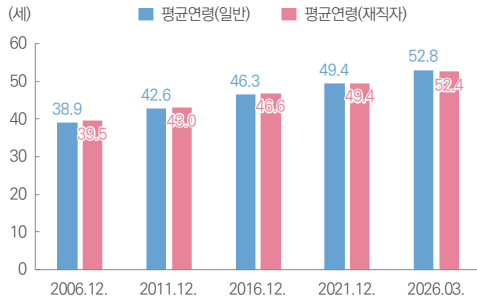
■ 청년층의 신규 진입 감소로 인하여 건설노동자 고령화와 고숙련 인력의 현장 이탈이 진행

- 청년층의 건설업 신규 진입 감소로 인하여 건설인력의 신규인력 보충과 기능인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육체노동의 특성을 갖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건설인력의 고령화는 투입대비 산출물의 저하로 이어짐
 - 신규인력의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산업 현장에서 이탈하는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신규인력 유입 문제에 대하여 기피 건설 작업에 대하여 피지컬 AI의 투입이 고려될 수 있음¹⁹⁾

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2022.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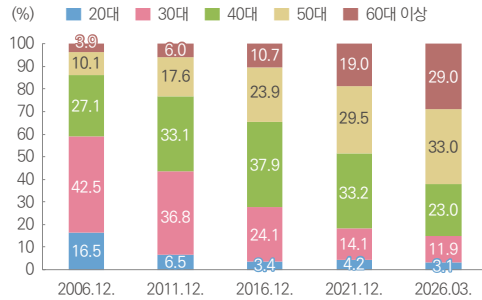
19) 건설 현장의 신규인력 부족과 고숙련자 현장 이탈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본과 중국 또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에 대하여 일본은 건설 현장 순찰과 로봇을 활용한 도장 작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증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중국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작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AI 도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민간 업체들은 실제 현장에서 바닥 평탄화, 미장, 도장 작업 등에 이미 건설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국내 건설업체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건설현장 투입을 위한 피지컬 AI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또한, '건설현장 시가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건설관리 고도화 방안 세미나'(2025.9.10.)와 '건설로봇 활성화 방안'(2026.10.6.) 등 국회에서도 관련 주제 세미나를 통하여 피지컬 AI의 건설현장 활용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림 20 | 평균 연령 변화



자료: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 그림 21 | 연령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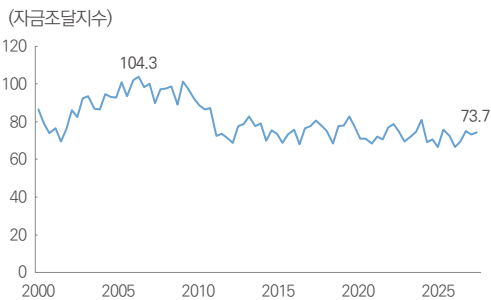
자료: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라. 금융비용

■ 금리의 인상은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건설비용을 상승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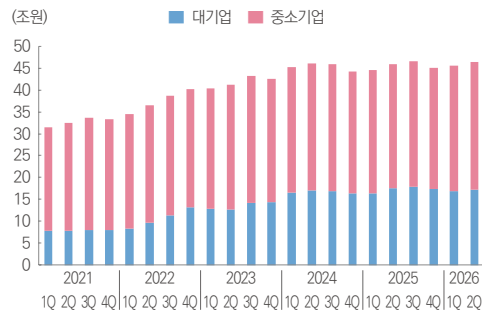
-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자금조달 여건이 양호하였으나 2022년 9월부터 급격히 악화
 - 2021년 7월의 자금조달지수는 104.3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들어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2022년 9월에는 자금조달지수²⁰⁾ 72.0을 기록하며 크게 하락
 - 건설업 대출금 또한 2021년과 2022년에는 큰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1분기부터 그 상승세가 전년동기대비 0.3%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후 낮은 대출금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의 건설업체의 대출금 증가세가 대규모 건설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그림 22 | 자금조달지수 추이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그림 23 | 건설업 대출금



자료: 국가데이터처

20) 자금조달지수는 건설기업들이 느끼는 자금 조달의 원활한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자금 조달이 원활함을 의미

■ 신용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보증 및 심사기준을 강화시켜 건설비용에 영향

- 최근 PF 익스포저²¹⁾가 감소하고 연체율도 개선²²⁾되고 있으나, 금리인상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져 금융기관의 건설사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한 간접비용이 증가
 - 금리 인상은 브릿지론²³⁾ 등 고금리 단기자금의 만기 재조달 부담을 가중시키고, 분양경기 위축과 맞물려 신용등급 강화를 위한 비용과 함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킴

21) 익스포저(exposure)는 금융이나 경제에서 특정 투자, 대출, 거래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나 상태를 뜻함

22) 2026년 2분기 PF 익스포저는 168.8조원으로 전분기대비 1.0조원 감소, PF 대출은 115.8조원으로 전분기대비 0.3조원 증가, PF 대출 연체율은 2026년 2분기 4.56%로 전분기대비 0.09%p 감소하였고, 유의 부실우려 여신은 15.1조원으로 전분기대비 1.3조원 감소(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6.10.14.)

23) 브릿지론(bridge loan)은 대출과 대출, 또는 자금 조달과 조달 사이에 생기는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고금리 단기 대출을 뜻함

4

요약 및 시사점

■ 건설비용 상승은 건설업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건설업 부진으로 이어짐

- 재료비, 노무비 등의 직접비용 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는 최근 건설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며 건설경기 부진을 초래

■ 건설비용 상승은 유가변동과 같은 일시적 충격에 더하여 높은 건설자재비용 고착화, 사회구조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

- 최근의 건설비용 상승은 단순히 일시적 경제적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닌, 산업 내 구조 변화와 사회 전체의 구조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 결과임
 - 2020년 이후 건설자재비용의 고비용 상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 건설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사회문화적 구조적 변화로 인한 청년인구의 건설업 신규 유입 감소에 기인

■ 건설비용 증가 구조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에 대하여 안정적 공급망 확보,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자금조달 여건 안정화 등 중장기적 대응 마련이 필요

- 재료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시장상황 모니터링과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
 - 예상하지 못한 충격,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수급 곤란 등 경제적 충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 노력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중요
 - 높아진 재료비의 하방경직성을 감안하여 공공건설공사비의 현실화,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한 가격 상승 근절 필요
- 노무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규인력 유입 유도과 생산성 제고가 필요
 - 청년층의 건설업으로의 신규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명한 경력개발 경로와 환경을 제시하고 고급숙련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급인력 양성 필요
 - 중장기적으로 건설인력 부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기피작업에 대하여 피지컬 AI 활용을 고려할 필요
- 자금조달 여건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필요
 -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건설업에 대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 실제 건설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현금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26년 10월호 통권 제84호

발행일 2026년 10월 23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7-001585-06

ISSN 3058-985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